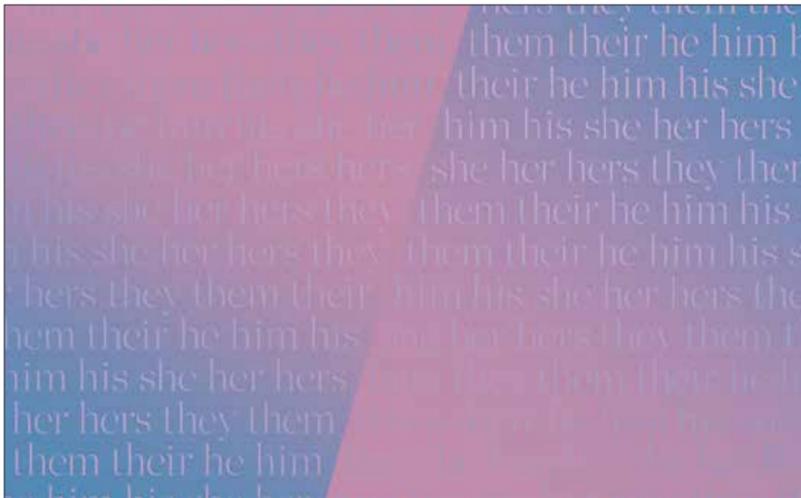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 하심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마지막 날까지 온전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

성별 호칭 대명사를 꼭 사용해야 할까?

미국 내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슈아 윌모트와 래건 젤라야는 뉴욕 북부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 휴튼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근무했다. 대학 정책에 위배 되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메일 서명에 대명사를 사용했다. 올해 초 대학 측에서 대명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윌모트와 젤라야는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해고당했다. “제 이름은 슈아입니다. 특이한 이름이죠. 여러 언어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을 가리키는 모음인 a로 끝납니다.”라고 정확한 이름이 조슈아인 윌모트가 유튜브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저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면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겁니다.” 젤라야는 인터뷰에서 “제가 이메일 서명에서 대명

사를 삭제하면 그렇게 한 것을 본 학생들이나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태도를 보일 가치는 없다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윌모트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별과 정체성에 관한 자신의 견해는 휴튼 대학교의 후원 교단인 웨슬리언(감리교) 교단의 신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스턴 대학은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대명사 사용만으로 해고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이메일 서명에서 성경 구절을 언급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스턴 대학의 웨인 D. 루이스 주니어 총장은 CT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

명사는 개인에 의해 선호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휴스턴 대학교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과 성별을 지정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대명사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규범의 변화를 직면한 것은 기독교 대학과 직원들만이 아니다. 직장, 교실, 조직화 된 사회 환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나 서신에 개인이 정한 대명사를 명시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종종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도록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전 휴스턴 직원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직면한다. (12면으로 계속)

퀸즈장로교회, “The Way”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이민 초창기 교회 설립으로 시작하여 다민족 사역에 이르기까지



김성국 담임 목사가 퀸즈장로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0월29일(주일) 오후 5시에 롱아일랜드 대학교 킬레스 센터(LIU Tilles Center)에서 드려졌다. “The Way”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퀸즈장로교회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들과 교회 창립을 함께 했던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모여 지난 5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걸어가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1부 순서에서 김성국 목사는 개회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50년 전에 퀸즈장로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49년 동안 퀸즈장로교회를 섬겨 온 허경화 장로는 회년을 맞이하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뉴욕센트럴교회 김재열 목사는 축사를 통해 퀸즈장로교회가 성경적인 개혁주의를 기반으로 교단 사역을 해 온 것들을 돌아보며 “식을 줄 모르는 정열과 복음이 뜨거워 김성국 목사”라며 퀸즈장로교회를 격려하고 50주년을 박수로 축하했다. 또한, 척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도 퀸즈장로교회 5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전했다. 중국어 예배부 무용팀의 축하공연 후 영, 유아, 유치부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다. 2부 순서는 “The Way” 뮤지컬로 시작하였다. 느헤미야와 이스

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성경적 이야기를 퀸즈장로교회가 50년 전 미국 뉴욕 땅에서 이민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를 세우고 부흥했던 이민 1세대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이민 교회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김성국 목사는 다른 3개 언어 회중 담임 목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마지막 선교명령(요한복음 14장 6절)”을 주제로 설교했다.

(10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강기봉 목사



특집 김태오 목사



교회음악이야기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이용규 목사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1973년도에 LA에서 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간 시무, 2016년 소천)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권 이가서 강해 제23권 선한 목자와 양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9권 못기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35권 대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36권 큰 산아 평자가 되라 제16권 진정된 평화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40권 감람의 영광 제20권 인간의 복된 시령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36권에서 발췌한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Scripture) 시편(Psalm) 136:1-3 제목(Topic) 감사하라 (Be Thankful) [감사의 대상] [The subject of our thankfulness] (1) 여호와께 감사하라 (Be thankful to the LORD) 1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 (Reason to be thankful to the LORD) (A)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심 출(Ex) 3:14, 15 (LORD exists on His own) (B) 여호와는 언약에 불변하심 말(Mal) 3:6 (LORD is unchanging to His covenant) (2) 하나님께 감사하라 (Be thankful to God) 2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Reason to be thankful to God) (A)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심 창(Gen) 1:1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B)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 요(Jn) 1:12 (God is our Father) (3) 주님에게 감사하라 (Be thankful to the Lord) 3 (주님에게 감사할 이유) (Reason to be thankful to the Lord) (A) 주님은 우리 소유자가 되심 고전(1Cor) 6:19, 20 (The Lord is our possessor) (B) 주님은 우리 통치자가 되심 딤페전(1Ti) 6:15 (The Lord is our ruler) (결론)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1Th) 5:18 (Conclusion)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시편 136: 1-3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설교집신청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발행인 칼럼

순간의 선택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모(某)라던 회사의 광고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광고하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의 광고 노래의 인기는 또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러나 역대(歷代) 어느 광고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TV 광고의 영향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후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고 삶에서도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었다.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모두 미국에 이민 왔지만 살 곳의 선택, 직업의 선택, 학교의 선택, 미혼자로 왔던 사람들에게는 배우자의 선택 등이 우리의 삶을 크게 다르게 만들어 왔다.

최근에 한국의 유명 배우가 마약에 손을 댄 정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무슨 최악의 선택인가. 그의 적극적인 팬이 아니어도 많은 이에게 호감을 주었던 배우가 아니었다. 허물어진 명예는 어찌하나, 여러 영화사와 광고주들에게 물어주어야 할 위약금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 보도에 꼬리를 물고 나온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그릇된 배우자 선택도 거의 엽기(獵奇)에 가까운 내용이다. 지금 온 세상을 들끓게 하고 수많은 사상을 내는 전쟁도 잘못된 선택에 기인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선택의 우선순위를 잠시 잊고 잘못된 선택으로 타락의 늪에 빠져있거나 겨우 빠져나왔다 하여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자신도 가족도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 이야기는 슬프게도 여기저기 널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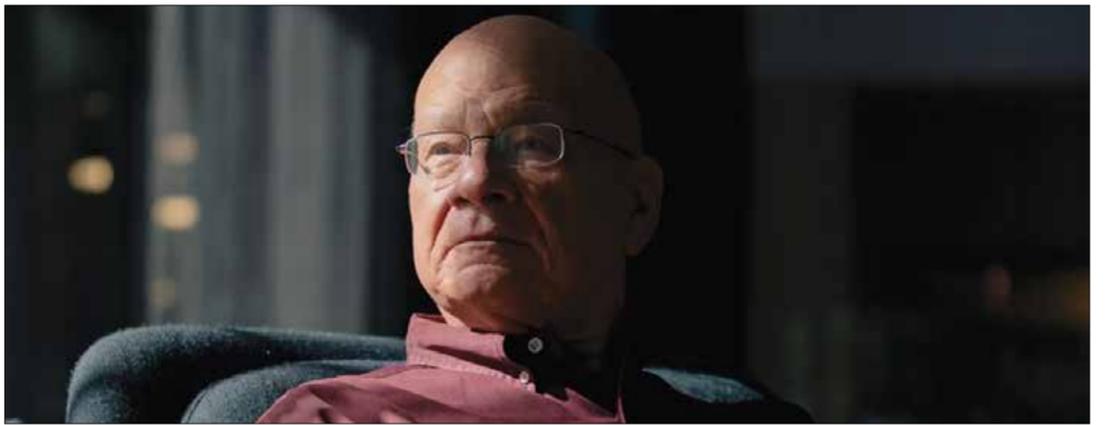
인생은 선택이다. 똑같은 환경인데 자기 환경을 늘 잡초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항상 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 평생 잡초밭에서 살기도 하고 꽃밭에서 살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는 말을 “네 탓이야”를 선택하는 사람과 “내 탓이야”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사뭇 다른 삶을 살리라. 뭔가 잘 되었을 때 “네 덕이야”와 “내 덕이야”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바른 선택을 하려는 의침이 크게 들리지 않는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고만 치고 있던 어느 병사에게 “자네 이름을 바꾸던지, 삶을 바꾸게”라고 했다는 알렉산더의 일갈(一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듯하다. 바른 선택을 요구하는 크나큰 의침은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엘리야에게도 있었다. 누구를 탓하라. 자신의 선택이 행복의 선택도 되고 불행의 선택이 되기도 한다.

건강을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이민 땅에서 건강을 해쳐가며 일했지만 그래서 번 돈을, 잃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쓰다 죽는다는 말이 꼭 남의 말만은 아니지 않을까. 지난 선택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할들 되돌릴 수 없다. 이제부터의 선택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한 바른 선택할 기회는 아직 있다. 성경에는 두 번째 선택을 잘하여 재기(再起)한 인물들을 쉽게 만난다. 다윗도 그렇고 요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던가.

이제 미국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다음 주 11월 7일은 선거일이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결과물이 달라질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과 눈을 부릅뜬 이성(理性)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를 겸손한 사람들을 잘 선택하자. 잊지 말자. 그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팀 켈러가 그의 추도식을 위해 선택한 6곡의 찬송가

고인이 된 목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가르쳐주었다



2020년 6월 3일이었습니다. 캐시 켈러가 보낸 이메일의 제목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팀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진단은 4기였다. 현재 치료법으로는 기대 수명이 1년 미만이었다. 5단계는 없다. 그렇게 3년 동안 실험적인 암 치료법의 최첨단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한 남자의 불치병에 대한 용기 있는 접근이었다.

팀은 10년 동안 나의 친구였다. 바이오로고스(프랜시스 폴린스가 그의 저서 ‘신의 언어’를 통해 주장한 새로운 창조론 연구를 위해 설립한 단체, 역자주) 초창기, 그는 뉴욕에서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매우 흥미롭고 생산적인 모임을 공동주최하는 데 동의했다. 비록 모든 부분에 완전한 일치로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팀은 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 멘토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의사이자 과학자이자 국립보건원(NIH)의 책임자로서 나는 그와 캐시가 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화학 요법은 때때로 췌장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동안만 가능하다. 그러나 곧 ‘정밀 종양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할 예정인데, 환자 암의 고유한 DNA 돌연변이를 정교하게 분석한 다음 신체의 면역 체계가 몰래 들어온 침입자를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인생과 사랑, 신앙의 동반자인 팀과 캐시는 장단점을 비교 끝에 진행성 유방암과 담낭암에 대해서는 초기 가능성을 보였지만 췌장암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 결

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NIH 임상시험에 등록하기로 했다. 팀은 치료 효과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신뢰했지만, 다른 일이 발생하더라도 의료 연구팀이 이를 통해 배우고 다음과 그 이후의 프로토콜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했다. 이러한 확신을 얻은 그는 암 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특정하고 고유한 DNA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을 받기 위해 NIH를 찾았다. 유류 단백질 중 일부는 기존 치료법이 실패할 경우(거의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활성화된 면역 체계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그 사이에 고용량 화학 요법이 시작되었는데, 1 주일은 투여하고 1 주일은 쉬었다. 독성 약물을 투여하는 몇 주는 힘들었지만, 팀이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회복 기간 그는 글을 쓰고, 가르치고, 교회 개척 활동을 이끌고, 위로와 조언을 구하는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치료 9개월 후, 그는 The Atlantic에 강렬한 글을 기고했다. “죽음에 직면하여 믿음을 키우다.” 그는 매우 솔직한 이 기고문에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갈등을 잘 묘사했다. 그는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영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팀은 “감상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없이 진심으로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고, 위로로 가득 찬 날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슬픔의 날들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화학 요법은 췌장암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보다 팀에게 더 효과적이었으며 수개월 동안 안정된 상태에서 투병하였다. 하지만 2022년 봄, 약물은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되었고, 수십 개의 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빠르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야수가 풀려났다. 단 몇 주 정도의 생존만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팀과 캐시는 면역 치료 실험을 위해 NIH를 다시 찾았다. 2년 전에 분리하여 암세포를 찾아 파괴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수십억 개의 자신의 면역 세포를 작은 ‘ নিজ 전사체’ 주입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며칠 동안 팀은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는 끔찍한 환각에 시달렸지만, 투병에 대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씩 그 특유의 평온함과 감사가 다시 살아났다.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는 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믿음, 사랑, 진리, 아름다움에 대해, 그리고 미국 교회의 상태에 대해 느낀 깊은 아픔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암 치료 기간 중 쓴 그의 냉철한 글 “미국 교회의 쇠퇴와 갱신”을 GospelinLife.com에서 읽어보지 않았다면, 거기서 교회의 현재 문제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진단과 치료법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간에 팀 켈러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다. NIH 의사로서 나는 그의 병실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팀과 캐시, 그리고 나는 우리 사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격렬하게 토론했고, 팀은 나에게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써보라고 강력히 권유했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The Bank of Princeton
5.20% APY* 18 Month Certificate of Deposit¹
4.60% APY* Premier Money Market Account²
3.00% APY*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³
¹,²,³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Offer valid on a 18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분노의 시대에 빠지기 쉬운 흔한 오류들

허위 정보, 당파적 조작, 조직적인 불신이 난무하는 온라인 세상에서 무엇을 믿을지 분별하라는 성령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날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깨어 있으라”(엡 6:18). “분별하도록 힘

쓰라”(엡 5:10). “모든 것을 분간하라”(살전 5:21). 그리고 “생각하라”(딤후 2:7).



무엇이 걸린 문제인가?

첫째, 교회의 평안이다. 40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지만, 나는 전염병과 대통령 선거가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열정적인 분열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몰랐다. 여느 목회자들처럼 나도 성도들로부터 “잘 연구된” 여러 기사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 나는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소극적이든 어떤 입장을 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힌 다른 주에서 목회하는 유명 목회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모범을 따르라며 충고하는 교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서로 모순되는 기사들을 보낸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들 모두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중한 우정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우리의 연합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걸린 문제는 신뢰성이다. 우리가 거짓에 쉽게 설득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참되다는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의적인 무지함 또는 눈가림은 진리의 여부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주제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

는 노릇이다. 하지만, 어떤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략적 망설임을 가져야 한다. 진리의 분별을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성경 읽기 능력이다. 매일 뉴스 자료를 습득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행 17:11).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헤트라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현직 대통령의 다음 말 속에 숨은 실재를 파악하게 한다. “결혼은 단순한 제인일 뿐이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성경적 능력은 우리를 이런 식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한다.

성경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것 외에도 행여 우리가 오류에 빠진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공개 토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성급한 결론' 오류

관련성이 있지만 불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몇 년 전, 전선 오류로 인해 애매한 상황에서 내 차의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내 앞에 있던 성급한 운전자들과 싸움을 벌일 뻔했다. “속보”가 난무하는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 교회, 국가가 감정적인 성급한 판단으로 분열되어 있는가? 야고보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

디 하십시오”(약 1:19). 천천히, 진정하고, 입을 다치고, 곰곰이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급하게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일단 공개적인 입장을 취한 이상, 거기에 반대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우리의 자존심이 더 크게 손상된다는 위험 요소를 꼭바로 인식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라.

2. '반복 논증' 오류

단지 자주 반복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믿는 것은 반복 논증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많이 들으면 들수록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끊임없이 거짓 비난에 시달렸다(막 14:55-59).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의 반복되는 거짓말을 믿었기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여러 가지 일로 고발”(막 15:3)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장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비난을 반복한 히틀러가 사용한 게 바로 이 기술이다. 나치의 선전은 거짓말을 증폭시켰고, 독일 문화에 반유대주의를 부추겨 마침내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반복되는 거짓말

은 오늘날도 치명적인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반복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전에 생각하라.

3. '인신공격' 오류

이 오류는 토론자가 논쟁보다는 사람을 공격할 때 발생한다. 논쟁에서 이긴 예수님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다(요 8:48). 모욕은 더 이상 논쟁할 무기가 남지 않은 사람이 의지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욕설에 능한 정치인은 인신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수고를 피하는 동시에 속기 쉬운 유권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한다. 복음에 충실한 목사를 단지 다른 목사가 ‘다시 깨어난 마르쿠스주의자’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건 차라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일이다.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신공격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나아가서 진리마저 훼손한다.

사람이 아닌 논쟁을 해체하라.

4. '이중 잣대' 오류

이중 잣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표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십에서는 성품이 중요하다. 교회 지도자들은 권위를 위임받기 전에 “책임할 것이 없어야” 한다(딤후 3:2). 그들이 그 신뢰를 배반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자라는 이유로, 인맥이 많거나 유명하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지도자가 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해야”(딤후 5:21)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반대자들의 결점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옹호자들의 비슷한 결점에는 변명으로 일관할 때,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드러내는 불일치와 편파성을 고의적인 속임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라.

(6면으로 계속)

시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로 불리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거대한 지역의 땅을 1,500만불에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 북미주의 땅은 동부, 중부, 서부로 크게 3등분 되어 있었으며 미국 자체의 영토는 동부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3배 더 큰 중부와 서부의 땅은 프랑스와 멕시코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중부에 위치한 거대한 땅, 루이지애나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구입할 당시 루이지애나로 불리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외국인은 6만명 정도였으며 그나마 절반은 흑인노예들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그 땅을 차지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분명히 이곳 저곳에 살고 있었다는 기록과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아닌 프랑스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정하고 미국에다 판매한 것은 땅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을 넘었습니다. 땅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진리는 이 땅의 그 누구도 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육체로 머무는 동안 땅을 소유하다 생명이 끝나면 그 땅은 누군가의 소유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러한 순환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가자 자치지구에서 하마스 소속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넘어와 이스라엘 정착촌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과 하마스라는 테러집단을 해체하려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엄청난 긴장과 생명의 손실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현재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2천년 가까이 그 땅에서 쫓겨나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19세기 말엽부터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그 땅에 살다 전쟁으로 쫓겨난 토박이들은 그 땅이 오히려 자신들의 땅이므로 지금이라도 돌려줄 것을 주장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과 분쟁은 쉽게 해결될 김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동시에 그 모든 땅은 ‘주인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레 25:23). 만일 그 목적이 변질될 경우, 땅은 우리에게 많은 빈부의 차이와 생존자체를 위한 갈등의 뿌리로 바뀌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짓으로 땅을 차지하고 사용한 그 대가를 오늘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때문에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땅을 사용하지만 한다면 화약 냄새로 찌든 이 매캐한 지구촌에도 상쾌한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살름.

hanks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3) 579-7576, Fax: (702) 257-9191 654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공부기도회: 오후 6:00 다민족화양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강좌: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탄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강좌: 오후 8:00 유치, 청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17) 435-4579, www.bostonlc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인간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703) 579-7576,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w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945-1512, Fax: (215) 945-9037 706 Wilmer Rd. Hoshart,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강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강좌: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아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a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cn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명품인가, 짝통인가?

한 노인 농부가 장터에서 씨앗을 구매하여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한해는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던 농부는 그

가 구매한 씨앗이 짝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속은 것에 대한 분노와 한해 농사를 망친 것에 따른 절망감으로 죽기로 결심하고 농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서 마신 농약마저도 짝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은 세상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합니다. 명품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짝통의 인기도 올라갑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 판을 칩니다.

짝통 시계, 짝통 가방, 짝통 보석, 짝통 운동화, 짝통 화장품, 짝통 옷... 전 세계에 짝통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 짝통 시장규모가 2,00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2022년 기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짝통 약품, 짝통 잉크, 짝통 식품.. 짝통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축의금으로 짝통 지폐를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짝통 신앙'

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놀랍게도 짝통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착한게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과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 났다고 합니다.

그럼 짝통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짝통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행위이고, 짝통 신앙입니다. 짝통 신앙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 행실, 철학 등 믿음 플러스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짝통 신앙은 '시한부 종말

론 신앙'입니다. 언제, 어느 시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짝통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신앙입니다.

짝통 신앙은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욕망에 따라 이기적으로 삽니다. 짝통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복'중심, '나'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돈, 건강, 장수, 성공을 주실 것이라고 믿

습니다. 특히 물질의 복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짝통 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에는 반드시 명품 신앙, 진품 신앙이 있습니다. '짝통은 명품의 그림자이다.'란 말처럼 명품이 있기에 짝통이 존재합니다. 또한 명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짝통도 덩달아 판을 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야 할 명품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믿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푸/른/초/장

강기봉 목사
(뉴욕백민교회 원로)



예전에는 무슨 일이 변하는데 50년 - 100년씩이 걸리던 것이, 지금은 1-2개월이면 바뀌어버린다. 무슨 영역이든 변천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 우리는 영원 유일무이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옛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은 선지자들이었다. 그 선지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셨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낯선 이방인들 틈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애뜻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다. 연약한 중에도 그의 삶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삼아 영위되었다. 자신의 이해 보다 하나님의 말

하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군할 때 필요한 직무였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직무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24-31을 통해 모세의 삶을 남겼다. 애굽의 왕(바로)

선지자의 삶이다.

3. 사무엘

사무엘 역시 모세 시대와 비슷한 면이 있어 역시 3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수백 년의 사사 시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나 통치를 경험하게 할 수 없었다. 엘리야 제사장직에 있었지만, 그는 늙고 하나님보다 지식들에게 마음을 더 기울이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은 엘가나

보다 자신의 인기와 영광에 더 치우쳐 행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는 했지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살아생전에 저를 보고 싶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 붓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살지만,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아본 적이 극히 적다. 거칠고 외로운 인생이었다. 그러나, 메시야의 조상이요 그림자와도 같은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

라엘, 언제까지 외쳐야 하느냐고 묻는다(사 6:11). 그에 대해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있을 것임(사 6:13)'을 분명히 하신다.

5.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 격인 인물이다.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수렁에 몰아넣은 아합왕과 맞대결하고, 바알, 아세라 숭배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일구어낸 대선지자다. 3년간의 가뭄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런 엘리야 역시 지칠 때가 있다. 뛰어도 뛰어도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사역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지쳐 '하나님 이제 죽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 하고는 로렘나무 아래에 누워 그저 잤다. 자고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솥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고 힘을 내도록 권고하신다. 엘리야는 맛있게 먹고 다시 누워 잠을 잔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신다. 일어난 엘리야는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호렘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소통을 시작하신 역사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 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선지자 THE MOUTHPIECE OF GOD, **נְבִיא** 이사야 6: 11-13



히브리어 나비(נבי)는 mouthpiece of(for) God 으로 하나님을 위한 입,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뜻이다.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의 영혼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셨다(전 3:11). 피조물의 자유를 보장하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는 차이가 크다. 하나님을 아예 도외시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싫고 무서워 적당한 선까지만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려는 이들도 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곧 선지자들을 소중히 소개한다.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다.

1.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 선지자라고는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신다(창 20:7). 성경에서 사람을 선지자라고 칭하는 처음이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틈에 거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했다. 가나안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 했다(창 20:10-20). 그런데 또 한번의 기근으로 블레셋 통치국 아래 있는 그랴에 옮겨내려 내려 갔다가 같은 생존책을 동원했다(창 20:1-7). 두 번 모두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비극적인 일

씩,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따랐다. 그런 삶이 조카 롯과의 관계, 소돔 왕의 뇌물 거절, 멧기세덱 제사장에게 십일조 봉헌으로 나타났었다. 무엇보다 지식 하나 없이 늙을 만큼 늙어버린 자기 내외인 줄 알면서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창 15:5-6)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피조물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이요 유일한 길이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기도 했다. (대하 20:7, 사 41:8, 약 2:23)

2.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행군을 하는 동안,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다. 430년 동안의 애굽 노예살이를 청산

이 될 수 있는 공주의 아들 신분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 택했다고 풀이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왕의 위협과 핍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더 믿고 행군했다. 행군 도중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저항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드려 그 처분을 기다렸다. 백성을 위해 감당하는 모든 역경과 희생은 기쁨으로 감내했다. 백성이 멸함 받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달라 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살아갔다.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순종했다. 자기 대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모세는 자신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 이것이 선지자요,

와 한나를 부모로 태어났다. 임태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던 어머니의 기도 열매였다.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이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과 그에 따르는 지극한 보살핌으로 성장했다. 그러기에 그의 의식구조는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는 백성들이 왕을 새워달라 요청했을 때, 섭섭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의 지도하심보다 사람들의 여론과 풍조에 더 휩쓸리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하셨다. 너무도 의외였지만 순종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는데, 그는 이스라엘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한 사람이었다. 일단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실패한 자였다.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 편에 섰고, 하

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다. 성경은 다윗 역시 선지자라 밝힌다(행 2:30).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역사의 대를 잇는 이름새로 살았다.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감당하다가 다음 대에 물려주고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자기가 시작한 일은 없다.

4. 이사야

이사야는 흔히 대선지자, 그가 쓴 이사야서도 대선지서로 분류한다. 왕족 배경을 가진 그는 히스기야 왕과도 가까이 지냈는데, 그는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66장에 달하는 선지서를 썼는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세밀하게 예언했다. 그에 반하여 선지자로서의 그는 무척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지만 듣는 사람들이 희귀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맺어야겠다. 하나님은 창조적 그 뜻을 버리거나 변경시키는 분이 아니다. 창조하신 것을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창 1:31), 지금도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신다(습 3:17).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굳세게, 영원토록 불멸고 사는 것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10리(4km) 거리를 걸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 천지가 되어 바로 건널 수가 없었다. 돌맹이 피하고 물살에 밀려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찾아야 할 정도로 밀려갔다. 나중에 보니 냇물 건너편에 정자나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눈을 그 정자나무에 맞추고 건너니 밀려 내려감을 면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확고한 기준,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부모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신 6:5-9,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한다. 사회문제, 청소년 문제의 근원이 어렸을 적 가정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로서, 어렸을 적부터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우선 내가 복되고, 후손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다.
kangkibong@hotmail.com

영적 침체에는 예외가 없다. 그렇게 인정받는 신자가 영적 침체에 드는 순간 불신자보다 못한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을 본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에게 특별한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줄 어떻게 알았는가?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듯, 교회를 욕하고 돌아서 갈 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예외가 없음을 본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불의 종 엘리야도 죽음을 이야기하며 로렘나무 밑에 누워 죽기를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같은 범인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 사역의 스트레스, 비교의식, 열등감, 건강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와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를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그 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읽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듣나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가? 덮어 놓고 믿지 말고, 성경책을 펼쳐 놓고, 잘 읽고 배우고 들으며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 내 눈으로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영적 침체로 인해 돌짜발같이 뭔가를 품고 있고, 길가와 같이 딱딱해졌거나, 가시덤불처럼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으로 가득차 있다면, 말씀으로 기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다.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하면, 입도 열리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혹은 들음의 종교라고 칭하는 것이다. 들음에서 구원의

자라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부모의 욕심으로 귀한 아들이라면서 자기 생각으로 붙들고 살았더라면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런 분명한 순종을 가능하게 했을까? 참된 기도의 능력,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 성경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심에 대한 엄청난 약속들이 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렘 3:20).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조차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기도가 우리 영혼과 삶을 살리는 것이다.

영적침체를 경험하는 이들은 어쩌면,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호흡이 다시 열려야 한다. 가슴을 손으로 두드려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채워지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고,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의 귀환을 명령했다. 70년 포로에서의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었나? 단순히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돌아와서, 저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속에 성전의 회복이 있듯이, 침체된 삶을 일으켜 세우려면 다시 주님의 전으로 몸을 가지고 나와,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주님의 몸과 하나님의 집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소중하다. 성경에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조그마한 집에 계시겠습니까? 몸돌 바를 모르겠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말한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과 전쟁 중인데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쯤에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 함락된 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의 김애환권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영도회복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제국은 주후 68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는 주후 70년 디도장군을 통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110만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국외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고난의 세월을 1,80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을 6시대 나눌 수 있습니다. 1) 로마시대 - 로마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하드리아 황제는 유대를 팔레스타인(Palestine)으로 이름을 바꾸고 예루살렘을 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명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유대인의 적인 불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 비잔티움 시대(로마 기독교시대) - 제국의 수도가 비잔티움으로 옮겨지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AD 323년에 콘스탄틴 황제(AD274-337)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하게 됨으로서 예루살렘은 종교적 정치적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많은 장소에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위에 예수님의 무덤교회,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교회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건축 양식은 교회 바닥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채색한 것입니다. 3) 회교 아랍시대 - 모하메드에 의해 창시된 회교도들은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을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주후 638년에 예루살렘성은 회교 아랍국의 오마르(omar) 왕에 의해 점령된 후 약 450년간 회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마호메드가 천사장 가브리엘의 인도를 받아 신비한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곳이라고 하여 성지로 정했습니다. 오마르 사원 즉 황금사원을 그곳에 건축하였습니다. 이곳은 메카와 메디나와 더불어 회교도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많은 기독교교회가 이 시대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자극되어 성지 탈환을 목표로 한 십자군 전쟁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4) 십자군시대 -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에 의해 소집된 십자군은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지만 1099년 6월 15일에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첫 번째 왕위에 오른 볼드윈 1세는 많은 회교도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사원을 파괴했으며 곳곳에 튼튼한 요새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1187년 회교국의 살라딘(Saladin)황제에게 패배하게 되어 1291년 십자군의 최후의 보루였던 악고가 무너짐으로 십자군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 오스만 터키시대 - 터키의 오스만(Ottoman)제국의 살림왕에 의해 1543년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된 후에 1516년 이스라엘에 이어 1517년 예굽이 정복되었습니다. 솔라이만 대제가 1537년-1542년 사이에 현재의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여 그 당시의 성벽과 성문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유럽과 러시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헤르츨(Teodor Herzl)을 중심으로 시온이즘(Zionism)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 현대 이스라엘시대 - 1917년 영국군 총사령관인 알렌비 장군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917년 11월에 발포 선언을 발표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지역을 분리시켜 유대인 민족국가 건설을 선언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 1947년 UN에서 팔레스타인 땅 안에 유대인 국가와 아랍국가를 양분하여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으나 아랍은 이 결정을 무효로 주장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삶의 예배라고 하여, 예배의 형식도 없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로움, 그 자체를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신앙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예배족들이다.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합당치 않은 일들이다. 마지막 종말 시대에 교회가 교화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실제 대안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지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고 찾아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그들이 가진 인생의 희노

애락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문이다. 더 나아가 삶의 예배라고 하여, 예배의 형식도 없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로움, 그 자체를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신앙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예배족들이다.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합당치 않은 일들이다. 마지막 종말 시대에 교회가 교화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실제 대안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지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고 찾아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그들이 가진 인생의 희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말세의 때를 지나는 우리는

신앙의 본질 회복 -영적침체,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회-

그 문제가 한 영혼을 덮어버린 것이다. 이를 회복할 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인생이 약하여 자주 잃어버린 영혼처럼 해매게 될지라도,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꾸준히 회복의 길을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성경, 예배, 교회라고 아주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세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좀 더 단순해야 한다. 기제도 복잡하면 고치기도 사용하기도 어렵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대개 생각이 복잡하거나, 집안이 복잡하거나,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인생도 복잡해지는 것을 많이 본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하지 않다.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영적인 삶의 단순함을 위해 회복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리저리 아무기 따지고 생각해 보아도, 네 가지로 규정할 법하다. 이 네 가지가 신앙과 삶을 튼실하게 하는 기초 석이 되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인생인가? 영적 침체에 빠져, 마치 거미줄에 걸린 행적과 같은가? 괜찮다. 다시 한번 더 말씀, 기도, 예배, 교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정의하고 견고하게 할 때, 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능히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말씀의 회복

성경은 독과 횃수에 상관없이 항상 새롭다. 보면 볼수록 새롭고 신선하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더불어 한 성령이 쓰신 책이기에 많은 사람이 각자의 성경을 읽어도 동일한 고백의 깨달음에 이르게 함을 본다. 신앙의 최고 가르침은 성경 그 자체를 읽고 보고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구절구절 자구(字句)

믿음이 시작되고,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생활이 잘 듣는 데서 시작되며, 비로소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신앙의 영적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장소, 하나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특히 영적침체의 때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팔다리를 움켜쥐어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신을 가져다 얹어야 한다. 거기로부터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마침내 영안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다.

2. 기도의 회복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지 못한다. 참된 말씀을 받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기도의 무릎을 통해, 말씀이 주신 비전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진다. 불같은 순종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힘이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 말씀의 비전에 대한 불같은 순종은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 기도 생활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의 하나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 진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었을 뿐 아니라, 그 귀한 아들을 바치겠다는 기도의 서원에 복종하였을 때,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고, 후에 하나님의 전에서

숨을 쉬도록, 영혼의 호흡을 회복해야 한다. 호흡이 되고 나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호흡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멈춰지기 때문이다.

3. 교회의 회복

바른 신앙, 복된 신앙을 위한 한가지 길은,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주의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자 곧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목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의 중요성은 많이 이해하지만,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편리주의 사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가만히 교회마다 가지는 간증의 역사 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졌음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를 짓고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피 같은 물질을 드러, 교회를 세워가던 그 마음의 뜻과 헌신들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 주의 교회를 빛나게 했던 것이다.

한국 교회가 백 삼십 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하며 성장해 온 것도, 교회 중심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먼저 예배당을 세우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예배당을 향해, 구역구역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산위에 빛난 도성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예배의 회복은 성전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스라엘에

을 것이다." 눈과 마음이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 중심의 삶이 회복될 때, 영혼과 삶의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4.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복이 있다. 주의 전에서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복 내려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인터넷 시대를 지나면서, 스스로가 작은 전자기계를 소유하고 다스리다보니(??), 말씀을 자기 선택의 기준에서 듣고 보는 신앙이 유행하고 있다. 자기가 주인처럼 되어서, 말씀과 말씀 전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자는 중요하지 않고, 받으시는 분이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내 시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 드린다고 해도, 받는 분이 안 받으시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인의 인생이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로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맺었다.

예배를 성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회복은 예배를 통과해야 한다.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 영상으로 드러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의 모형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에서 수금을 걸어두고 목 놓아 울며, 그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각자 알아서 자기 처소에서 2~3 사람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새로운 세계를 열러라

미국의 IVY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 첫째에 자살 비율이 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든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최고로 공부 잘했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대학에 가니 날고뛰는 학생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평범함, 아니 때론 부족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

기에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거대한 기대도 한몫합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신은 그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제대로 공부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공부로 앞서는 것이 자기 세계가 아니고 그 분야는 이미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그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살아가다가 도전을 받을 땐 못 견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더 큰것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넓고 더 큰 세계에 도전을 받고 더 많은 것과 부딪혀야 발전이 있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이 자신의 조그마한 세계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인도네시아 시골에 살던 청년들이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골에서 평생 무슬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직장을 찾거나 공부하러 도시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다른 세계를 보게되고 무슬림 율마 공동체에서 매일 엄매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러 도시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다른 세계를 보게되고 무슬림 율마 공동체에서 매일 엄매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큰 꿈을 꾸

면서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처럼 외부와 연결되고 새로운것을 보고 느낄 때 더 큰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헛바퀴 돌듯하는 일상이 다가 아니고 더 큰것을 볼수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도전하는 일에서 실패 하셨나요? 실패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 후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속되는 도전은 우리를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지쳐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독 간수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경력이 무



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좋은 간수로 인정받았는데 옥문이 열렸고 죄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은 죄수들이 죽으려는 자신을 살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죄수가 오히려 간수를 생각한 것이고 도움을 준 것입니다. 아니, 간수는 그 이전부터 바울과 실라를 눈여겨 봤습니다. 잡혀 온 이들이 억울하고 원망이 앞설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은 그가 여태껏 보아온 다른

죄수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인질 첫 구출 성공... 이스라엘 "휴전은 없다" 일축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도시인 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시티로 봉쇄망을 좁혀가고 있다.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 여론을 일축하며 지상 작전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궁지에 몰린 하마스는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선전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군(IDF)은 31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하마스의 대천차 미사일 기지, 로켓 발사대, 지하터널 내부 시설 등 300개 표적을 공격했다"며 "수많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후 나흘간의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가자시티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베이트하누에 이스라엘 탱크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한 위성 사진에서 포착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지상 공세를 시작한 뒤 가자지구에서 가장 깊숙이 침투한 것"이라고 전했다. 작전 과정에서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여군 인질 1명이 구출됐다. 이스라엘군은 구출한 오리 메기디시 이병의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면서 가족과 재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스라엘 인질이 구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남부 자이툰 지구에 진입해 살라딘 도로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살라딘 도로

는 남부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중심부의 핵심 도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자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을 공개했다. 인질을 고리로 대의 여론을 자극하고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해 전진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개된 영상에서 여성 인질 1명은 "우리를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 달라"고 절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영상을 '잔인한 심리 선전'으로 규정하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휴전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항복하고, 테러에 항복하고, 야만성에 항복하라는 것"이라며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싸우는 게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악몽의 헬러원...美 전역서 충격 사건, 사상자 속출

미국에서 헬러원을 앞두고 사흘간 13개 도시에서 충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헬러원을 즐기러던 청년들이었다. 30일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헬러원을 앞둔 주말인 지난 27~29일 플로리다주 탬파,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텍사스주 텍사캐나 등 13곳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으로 최소 12명



이 숨지고 79명이 다쳤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은 지난 29일 새벽 한 헬러원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상자들의 연령대는 16~2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 남성이 파티 입장이 거부되자 총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파티장에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플로리다주 탬파의 술집과 클럽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18~27세의 젊은이들이었다. 현지 경찰은 22세의 용의자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시카고 서부에서도 헬러원 파티가 열리던 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다. 범인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곧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8일 루이지애나주 서부 도시 레이크 찰스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파티를 즐기던 도중 총격이 벌어져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건 용의자로 17세 소년 아르타빈 그린을 체포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역 보안관인 토니 맥쿠스는 성명에서 "10대 청소년들로 가득 찬 파티였다"며 "우리는 이러한 무기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지난 25일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나흘 만에 미국 각지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속출했다고 보도했다. 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583건으로 집계됐다.

바이든, 기업들에 "AI 안전 테스트 정부와 공유" 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인공지능(AI) 모델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딥페이크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콘텐츠 인증도 개발하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이 같

은 내용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 명령은 AI 시스템 개발자가 안전 테스트 결과 및 다른 중요 정부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국가 안보나 경제, 공공 보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모델을 테스트할 때 연방 정부에 알리고,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했다.

행정명령은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하고 공식 콘텐츠를 인증하는 표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번 명령에 따라 콘텐츠 인증 및 워터마크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행정명령에는 AI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 등 노동자 피해를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 개발 내용도 담겼다. AI를 이용해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생물학적 합성 스크리닝 표준도 개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감 있는 AI 사용은 세상을 더욱 변형하고 혁신적으로 만들 잠재력이 있지만, 무책임한 사용은 사기, 차별, 편견, 허위 정보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기 치기 위해 AI가 만든 오디오와 영상이 이미 쓰이고 있다. 딥페이크는 평판을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며 "나도 내 것(딥페이크)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언제 저렇게 말했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11월 1~2일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전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 파트너들과 AI 표준 개발도 가속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테크 기업, AI 전문가가 공동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인사들과 네이버,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 관계자도 참석한다.



분노의 시대에 빠지기 쉬운 흔한 오류들

(3면에서 계속)

5. '억제된 증거' 오류

이것은 당신의 주장에 불리한 증거를 숨기는 것이다. 사법 제도에서는 진실을 판단하려는 공정한 제3자 앞에서 두 당사자가 주장을 펼친다. 솔로몬의 말을 기억하라.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잠 18:17).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770년 존 아담스는 보스턴 대학살에서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한 영국군을 변호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향한 배심원단의 편견을 눈치챈 아담스는 다음 사실을 상기시켰다. "사실은 완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 성향,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사실과 증거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양측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은 배심원단은 명시하는 군인들 가운데 살인죄

를 범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스도인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증거를 억압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무료로 보장된 뉴스 매체 간의 시장 경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실을 (그리고 팩트 체크를) 제공한다. "내가 원하는 사실"만을 보도하는 뉴스만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편견을 더 굳히고 나아가서 자신까지 속이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인의 80퍼센트 이상이 디지털 기기에서 뉴스를 얻는다. 디지털 기기는 독자를 편중된 정보에 가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작된 뉴스 제공원이다. 깊게 읽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다양하게 읽으라.

6. '유명인 의존' 오류

주장의 타당성보다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명인 의존

오류'이다. 많은 언론인이 남다른 수사 기술을 갖고 있으며 청중이 의견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다.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하면 유명인은 "농담이었어!"라고 즉시 변명한다(잠 26:18-19). 단지 재미있는 코미디, 풍자, 해설이었다는 식으로 자기 말에 책임을 회피한다. 1732년 벤저민 프랭클린은 리처드 손더스라는 가명을 만들어 자신의 경쟁자인 타이탄 리즈(Titan Leeds)의 사망일을 예측하고 발표했다. 리즈는 프랭클린이 예상한 날에 죽지 않았지만, 프랭클린-손더스는 사기를 계속 치며 엄청난 양의 연간 정보집(Poor Richard's Almanack)을 팔고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모든 청중이 프랭클린이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저널리즘과 엔터테인먼트의 혼합은 미국의 오랜 전통이니까.

좌파 쪽에서 볼 때, 레이첼 매도우(Rachel Maddow)는 시청률을 성공적으로 끌어낸 매력적인 스타일의 미디어 유명인이

다. 방송 중 명예훼손 발언으로 다른 언론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건을 기각했다.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매도우가 객관적 사실을 암시했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우파 쪽에서는 터커 칼슨(Tucker Carlson)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들은 칼슨이 허구를 사실로 제시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이 선택한 변론 전략은 "칼슨이 자신이 논의하는 주제에 대해 '실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되고 '비문자적' 논평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청중이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판사는 이에 점유율을 높였다. 모든 청중이 프랭클린이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저널리즘과 엔터테인먼트의 혼합은 미국의 오랜 전통이니까.

엔터테인먼트의 이면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라.

7. '동기 호소' 오류

제한한 사람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안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이다. 바울은 어떤 사람은 나쁜 동기로 전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동기로 전파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골 1:18).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명예나 재산 축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질 것이다. 요점은 동기가 논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교자의 동기와 상관없이 복음은 참되다. 기소하는 주체가 단지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 질투심 많은 교단의 경쟁자, 필사적인 정치인, 또는 경멸받는 언론 매체라는 이유로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나 대부분이 손에 들고 있던 증거는 오로지 매도우와 칼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전부였다.

리 악의적인 동기라고 해도 제시하는 증거가 진짜일 수 있다.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주장도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와 관계 없이 혐의의 증거 자체가 검증될 수 있다면 고발자의 동기는 무관하다. 동기를 무시하라. 그리고 메시지를 조사하라.

합리성이라는 평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신다.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지지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가진 지적 능력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아무리 예를 써도 내가 하는 팩트 체크와 비판적 사고가 최신 헤드라인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여러분의 관용(합리성)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골 4:5)라고 권면했다. 합리적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실을 증언하는 우리를 여물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주체로 만든다.

by Steve Bateman, TGC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5)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II. 청교도 교회언약 (Puritan Church Covenant)

16-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교회 체제와 국가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영국 국교와 영국의 왕들의 거센 반대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상태에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 언약을 통하여 개인의 경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개인언약의 사상은 이미 16세기에 유럽 대륙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 잘 정립되었다.

청교도들이 개인 언약에 집중하였지만,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통속에서도 신앙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들은 교회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국 교회에 대하여 싸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언약의 구체적인 실행은 영국이 아니라 뉴잉글랜드에서이다.

청교도들 가운데 장로교와 청교도들은 교회 정치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영국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 되어 선포된 후에도 당시 영국의 청교도들은 공식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회 체제가 장로교 정치 체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교도들 가운데 분리파 (Separatists)와 독립파 (Independents)들은 모두 교회언약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모두 회중교회 (Congregationalism)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중교회 청교도들의 교회 언약은 영국이 아니라, 뉴잉글랜드에서 확립되었고 정착되었다.

교회언약 사상의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이다. 로마 카톨릭과 영국국교에서 회원이 되는 과정은 비자발적이다. 청교도들의 교회개혁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회중교회 청교도들은

교회는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국교회는 영국에서 태어나면 자기의 자발적인 신앙고백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 그러나 회중교회 청교도들은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잘못된 교회체제가 교회의 부패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회중교회는 분리주의 (Separatists)와 독립파 (Independents) 혹은 비분리주의자(Non-Separatists)로 나누어진다. 분리주의자들은 영국교회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독립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는 청교도 그룹이다. 여기에는 미국으로 이주한 필그림들(the Pilgrims)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비분리주의자들은 영국교회안에 머물면서, 내부로부터 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한 청교도 그룹이다.

영국에서 로버트 브라운 (Robert Browne)은 1579년부터 분리주의적인 설교를 했다. 영국국교회를 강하게 비판했고, 그 결과 영국교회로부터 많은 경고를 받았다. 1581년 브라운 중심으로 40여 명이 모여 청교도 분리주의 회중교회가 시작되었다. 당시 이것은 불법이었고, 따라서 영국교회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언약에 서약하였다. 이것으로 첫 분리주의 회중교회가 세워졌다. 물론 교회언약의 개념은 메리 여왕시기부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존재했고, 유럽 대륙에서도 재세례파들이 교회언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브라운이 세운 분리주의 회중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은 영국교회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이들은 박해하는 영국교회에 대항하기 보다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기 위한 교회언약에 더욱 순종했다. 브라운이 세운 교회의

교회언약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도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죄악을 멀리할 것이라는 교회언약에 서약 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서약이다. 셋째는 공예배를 말한다. 교회에서 질서있는 기도, 성경봉독, 권면, 위로 등을 한다. 그들은 교회에서의 질서를 강조했다. 넷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서약한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고백한다. 당시 전도의 개념은 영국교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영국교회의 회원은 모든 국민이며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영국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회중교회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의 열심을 적극적으로 낸다. 청교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빛난 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놀워치 감독 (Norwich Bishop)은 분리파 회중교회 설립을 알고 (1581년 4월) 대단히 분노했으며, 교회 분열에 대해서 징계하였고, 브라운을 몇 번이나 옥에 가두었다. 그러므로 그의 동료들과 회중은 1582년 네덜란드에 피신하여 미들버그 (Middleburg)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회중교회를 세웠다. 브라운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나 네덜란드로 가서 그들과 합류했다.

로버트 브라운의 책 "모든 참 그리스도의 삶과 양식을 보여주고 그들이 쿠르크족과 교향주의자들과 이교도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책" (A Book which shows the life and manners of all true Christians and how unlike they are unto Turks and Papistes and Heathen folks)에서 당

시 분리주의 청교도 회중교회의 교회 언약을 잘 설명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은 무리들을 강조한다 ("a company, or number of believers, which by a willing covenant made with their God"). 브라운의 교회의 개념은 "교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voluntarily)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세례를 통하여 그 언약을 확증한 무리들이다."

청교도들의 교회언약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개인 은혜언약과는 다른 개념이다. 교회언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Church Community)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브라운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으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한 자라야 한다." 세례는 이 언약의 보증이 된다.

브라운에 의하면 교회는 교회 언약의 기초에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교회언약은 강요적인 성격을 띠어서 안되며,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어진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며,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교회의 회원이 되며, 나아가서 이 언약의 징표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세례를 행해야 한다.

브라운의 교회관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자들의 모임이며, 교회는 참 믿는 자들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

여기에서 장로교회의 교회관과 차이가 있다. 장로교회에 의하면 지상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중교회에 의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교회역사상 계속 논쟁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회중교회 청교도들은 "가시적인 성도" (visible saints) 개념을 매우 강조한다. 교회는 오직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중교회는 각자가 회원이 되기 위하여 개인 신앙고백을 매우 강조한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하며, 회중들은 그 신앙고백을 듣고 받아 주어야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회관은 회중교회 (비분리주의 및 분리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다. 저들의 교회관은 진실된 성도들로 구성된 성도들의 무리이다. 그러나 장로교회 청교도들은 지상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브라운은 네덜란드의 피신 중인 미들버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1584년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교인들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핍박을 당하여, 영국으로 돌아갔다. 브라운이 영국교회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1587년 10월 7일,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장으로 있는 영국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앞으로 영국교회에 충성하겠다는 진술서를 쓰고 자신이 앞장서서 영국교회를 개혁해 온 청교도 운동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브라운은 청교도 운동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그가 주장한 분리파 청교도의 교회론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영국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주의의 사상은 헨리 배로우 (Henry Barrowe)에게서도 나타났다. 배로우는 교회는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도 비판했다. 왜냐하면 칼빈의 제네바 교회는 제네바 시민 전체가 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영국교회도 성도들이 자발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영국 시민들을 자동적으로 교인으로 받기 때문에 영국교회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자발적성을 통해 교회언약을 맺음으로 참된 교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는 언약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눈에는 영국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교회에서 분리되어야 참된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리파 청교도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는 1)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하고; 2) 성령이 성경대로 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의 교회관에 동의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에; 3) 치리가 신실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악을 제거하는 치리가 시행되어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리파 청교도들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라는 개혁신학의 교회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분리파 청교도들은 유형교회가 최선을 다해 무형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들의 유형교회의 모습은 "가시적인 성도 (visible saints)"들의 무리이다. 그들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매우 강조했다 (purity & holiness).

영국교회는 분리주의 회중교회가 영국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 (unity)을 무너지게하는 큰 죄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리주의 회중교회 청교도들을 크게 핍박했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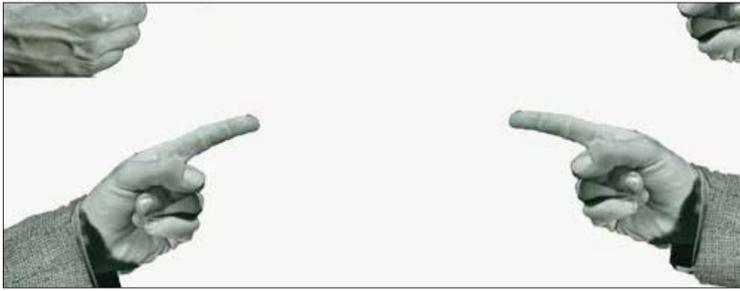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원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sg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714) 472-2779, www.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후 9:20 새벽기도회: 오전 11:20 Tel: (714) 472-7777, Fax: (714) 4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게속에 흠여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ryden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www.wmcsa.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살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Fe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살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부)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지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관심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일일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2)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역기도: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2,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청년/영성):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성경이 읽어주세요" 수요일: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비판하지 말라(Do Not Judge)



비판(Judge)이란?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비판이란? 자기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자로 다른 사람을 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여 "길다, 짧다"고 늘어놓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2) "비판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는 데 도가 트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여기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할 일이 있으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통해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려면 세 가지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No One Wants to be Judged)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비판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남이 날 두고 비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너희들 다 비판 받기를 원치 않지? 남이 너희를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지?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비판 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마 7:1)고 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2)고 하십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거침없이 남을 비난하기 전, 먼저 자신을 살리는 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이 비판한다.(People who Cannot See themselves Judge Others)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한 사람

이 남을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마 7:3,4)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부인이 낮에 좀 한 가할 때에는 리빙룸에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데, 자연스레 건너 집에 있는 리빙룸으로 시선이 자주 갔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골목을 하나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아파트와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에 골목 사이를 두고 리빙룸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입니다. 건너 집에 있는 리빙룸에는 아주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가끔 리빙룸에 나와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 일은 없어도 서로 멀리 쳐다보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여전히 리빙룸에 나와서 무심결에 건너편에 있는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그날 따라 부인이 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대뜸 그 입에서 "원, 세상에 창문이나 제대로 닫고 책을 읽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하지, 저렇게 게을러서 책만 읽으면 뭐하냐?"하고 자기도 모르게 건너 집에 있는 부인을 비판하는 말이 튀어 나왔습니다. 한 두주가 지났습니다. 따뜻한 날 청소를 했습니다. 유리창들을 닦고,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하루종일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커피 한잔을 들고 리빙룸에 와서 포근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건너편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건너 집에 있는 부인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바느질하고 있는 부인이 그림을 보듯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저 부인이 창문을 닫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창문을 제대로 안 닦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 내가 이렇게 바보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창문을 닫지 않고 남의 창문 안 닦았다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닦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말 (Words through which the Holy Spirit Works)

세 번째, 비판하지 않으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거기에 앉아 있는 120문도의 말을 통제했습니다. 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입과 말을 통제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합니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합니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에 졸잠아 2만 5천 내지 3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베를린 시청입구에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시인인 보들레르가 "언어는 단 한 마디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했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언어는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비판하지 않는 말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절망 중에 있는 가정과 사회와 오대양 육대주의 지구촌에 사는 이웃들을 살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안트로포스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이 안트로포스이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의 정체성은 위를 바라볼 때 구현되는 것으로 곧 창조주를 바라볼 때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일 것이다. C. S. 루이스는 악마들이 주고받는 편지 형식의 글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인간들이 원수(그리스도)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개종 간단한 방법은 원수(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들은 지속해서 성도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돌려 다른 것을 향하도록 방해하여 진정한 인간다움을 누리고 추구하지 못하도록 훼방한다.

우리의 삶의 평강을 깨는 훼방꾼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며 죄 된 본성에 굴복하도록 지속해서 공격한다. 오래전에 어떤 자매를 알게 되었다. 이 자매는 위가 아프다고 기도 요청을 하였다. 그 자매의 위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한 영적인 것을 감지하게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하자 자매는 갑자기 몸을 비틀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반응을 하였다. 악영의 노획이었다. 알고 보니 자매는 사춘기 시절에 다른 양육자에 의해 양육을 받으며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쓴 뿌리로 남아있던 자매였다. 그녀의 상한 심령은 악한 영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양육자에 대한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악한 영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듯 죄는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하는 틈이 된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라고 권면한다 (에베소서 4:26-27, 쉬운 성경). 삶을 흔히 관계의 덩어리라고 한다. 그만큼 많은 관계 안에 실태래같이 엮여 있는 것이 삶이다. 그 관계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도 있지만 아픔을 주는 만남도 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아픔을 주는 만남은 상한 심령을 낳게 된다. 이때 상한 심령을 바울의 권면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마음은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는 틈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악한 영의 이끼림에 휘둘린 생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신앙생활을 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위대한 바울도 이에 대해 갈등하고 고뇌한 것을 로마서를 통해 볼 수 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로마서 7:18, 쉬운 성경). 그만큼 죄인된 본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저절로 사그러지지 않고 여전히 꿈틀거리며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협한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이라고 권면한다 (롬 8:13).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안트로포스, 인간을 규정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새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모든 상황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죄의 횡포에서 우리 내면을 지킬 수 있고 악한 영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yanghur@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남미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영어. 목 사, 평신도.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만큼은 은혜가 넘쳤지만, 현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성지'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거룩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여행 중 예루살렘에서 한 선교사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가 이미 이스라엘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귀한 도움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좋았던 도움은 밤 시간에 그와 함께 감람산에 올라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것

이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30년 가까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의미인 '평화의 도성'과는 정반대로, 영화가 따로 없었다. 그가 고등학생 때, 버스 안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자살폭탄테러를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왼쪽 귀의 청력의 90% 가까이를 잃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덤덤히 털어놓는 그의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그가 청력을 잃은 테러에서 유대인이 몇 명 죽었

는데,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20배가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하마스의 잔인한 테러로 시작된 전쟁은 이스라엘의 더욱 잔인한 폭격을 불러왔고, 아직까지 멈출 줄을 모른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테러를 받으면 20대 1을 기준으로 되갚아왔고, 이번에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 1600명이 사망했으니, 그의 20배에 해당하는 3만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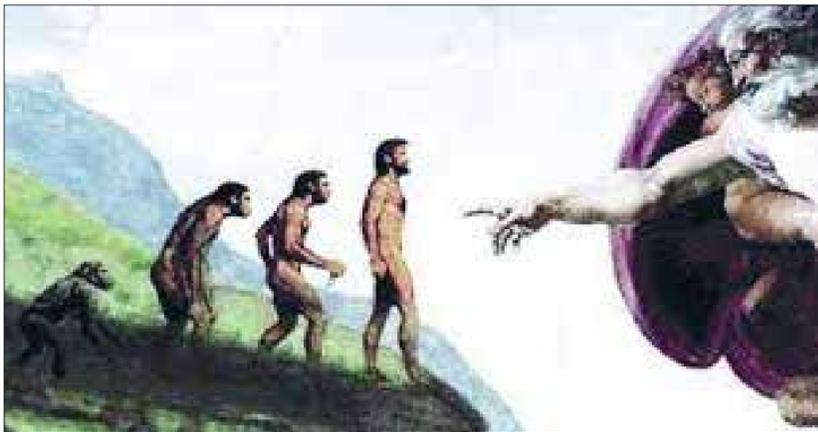
사망자로 갚아줘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지만,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마스에게 잡힌 200여명의 포로를 돌려받지 못해도 20배로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말인가? 맞다. 약하다. 그렇다고 하마스가 옳은가? 아니다. 하마스도 약하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결코 의로운 것만은 아니고, 하마스는 잔인한 테러

로 이 전쟁을 시작했으니, 결코 의롭지 않다. 누가 누구보다 더 악하고 덜 악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피가 피를 부르는 증오와 폭력은 멈추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어야 한다. 이미 만 명이 넘게 죽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누구를 편들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스라

엘 편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하마스 편을 들어야 할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편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평화가 아닐까? 총칼을 내려놓고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자.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4) wmlakim@gmail.com

미주장신대, 미주 한인 청소년들의 창조론과 진화론 설문조사 분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미주장신대출판부 두 번째 출판 프로젝트인 '21 세기의 도전: 신학과 과학의 즐거운 동거'를 2024년 출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태두 교수(미주장신대)와 김경준 교수(월드미션대)가 "미주 지역 청소년과 부모들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하여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미주 전지역의 초중고생 한인 기독교인 자녀들(95명)과 부모들(9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편의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개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경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이며 첫 인류인 아담의 후손임을 믿나요?" 라는 질문에 강한 찬성 또는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7.8%였다. 또한 "당신은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 종교적 신화라고 생각하나요?"라는 물음에 강한 반대 또는 반대 의견이 94.3%를 차지하였다. 자녀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비율은 90.2%를 나타내어 부

모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화론이 비과학적이고 창조론이 종교적 신화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4.3%에 그쳐 부모 세대와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진화론의 기초적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지구가 탄생할 때의 환경 조건이 생명체를 만들게 하였다고 생각하는가, 화석기록이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과거와 공통조상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상동기관이 진화의 증거라고 생각하는가" 등이었다.

설문 응답 결과를 수치상으로 나타내기 위해 강한 반대를 1점, 강한 찬성을 5점 척도로 변환하여 계산해 본 결과 4 문항의 평균 점수(전반적인 진화론의 내용에 동의하는 점수)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평균 2.61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자녀들은 진화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 역시 부모들의 응답(평균 점수 1.54)과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부모들은 진화론의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창조론의 내용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 대한 결과이

다. 종의 다양성이 창조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에 81.5%의 자녀들이 강한 찬성 또는 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창조로 인해 중간 단계의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이라고 응답한 자녀들(44.6%)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를 다시 분석하면 크리스천 자녀들은 창조론을 전반적으로 믿고 있으나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

울 때 교회에서 배운 창조론의 가치관과 혼돈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47.8%의 자녀들이 찬성 또는 강한 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절반 가까운 자녀들이 학교의 진화론과 교회에서 배운 창조론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정신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화론의 내용에 동의하면 할수록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가치관 충돌로 인한 정신적 혼돈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창조론의 내용에 동의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혼돈을 덜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관의 혼돈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41.3%의 자녀들이 종교와 생물 시간은 다르다고 체념했다고 응답했다. 31.5%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으며, 오직 7.6%만이 부모님이나 교회와 상담을 했다고 응답했다. 즉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치관 혼돈에 대해 자녀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부모와 교회가 자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혼돈

의 정도가 얼마나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영향력은 21.1%였다. 게다가 자녀들은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긍정 답변은 45.6%에 그쳤다.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에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어 가치관의 혼란 경험을 낮추는 방안이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부모들이 창조론적 신앙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미국의 공교육이 창조론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성경적 창조론을 설교하고 교육하여 부모들과 자녀들을 혼란시키는데 힘써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창조론과 진화론에 전문성을 지닌 독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바쁜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고 전문적인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팀 켈러가 그의 추도식을 위해 선택한 6곡의 찬송가

(2면에서 계속)

나는 팀의 암으로 인해 팀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온라인 그룹에 계속해서 크게 기여했다. 박물관 친구들은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 그 선물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인 조지 헛필드의 1739년 설교 원본 인쇄본과 고 마이클 거슨이 쓴 글귀를 액자에 담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우리는 이 삶과 이후의 삶에서도 끝나지 않을 교제 가운데 묶여 팀을 사랑합니다." 아멘. 6주 후 스캔 결과 면역 요법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간의 종

양이 녹아 없어졌다. 나는 친구들에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했다. 다른 의사 몇 명에게도 익명으로 스캔 사진을 보여줬더니 모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렇게 치료될 수 있을 것인가? 몇 달간의 답답한 기간이 이어졌다. 팀은 완전히 생산적인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야수가 공격했다. 치료로 정복한 수십억 개의 암세포 중 몇 개의 불량 세포가 탈출한 것이다. 면역 체계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무시무시하게 퍼져나갔다. 두 번째 암세포 표적이 확인되었고,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계획이 실행되었다. 팀과 캐시는 다

시 한 달간 입원하기 위해 NIH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극적인 회복이 없었고 팀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팀의 국립보건원 입원이 끝날 무렵인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나는 오늘이 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나는 주일 오후에 국립보건원 임상 센터의 넓은 아트리움에서 즉석 예배를 드리고 제안하고, 팀에게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즉각적인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어야 했다. "네," 그가 말했다. "기독교 신앙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찬송가 여섯 곡을 순서대로 불러봅시다." 나는 함께할 다른 사람들을 모았다. 가끔 피아노 건반을 잘못 누르긴 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를 드

렸다. 팀은 찬송가 선곡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Immortal, Invisible, God Only Wise" 영원하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묘사이다. 팀은 특히 마지막 가사에 주목하길 원했다. "오직 빛의 광채만이 주를 숨기나이다."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묵상이다. 팀이 베이스 파트를 불렀다. "How Firm a Foundation" 얼마나 굳건한 기반인가? 좋은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캐시와 팀

의 결혼식 피로연 때의 찬양이었다. 팀의음정은 정확했다. "Jesus Lives and So Shall I" 예수가 살아 계시니 나도 살리라. 미래의 희망에 대한 조용하지만 깊은 찬송가이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며 지금도 내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시네."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당신에 대해 선포된 영광스러운 것들 시온 즉 교회가 이 만세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선포이다. "For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를 위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 모일 것이다. 캐시와 팀은 이 예배가 3년 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첫번째 예배였다고 말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캐시는 팀의 추도예배에

서 이 찬송가들을 부르기로 했다. 예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캐시가 제안한 "There Is a Redeemer,"(구원자 주 예수)라는 찬양을 한 곡 더 불렀다. 찬양 이후 캐시와 팀은 팀이 리더며 교회를 개척한 초반의 몇 년 동안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려주었다. 마지막 구절은 이러하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비옵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팀, 당신은 지금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By Francis Collins, CT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장로교회, 자녀양육세미나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마음과 영이 건강한 자녀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엘렌 리(Redeemer Counselleng)를 강사로 초청하여 11월12일(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란노실에서 진행한다.

▲ 문의: 718-706-0100

퀸즈한인교회, 뉴욕 찬양 콘서트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아베크 트리오(심삼중, Kenny Baik, 장현화)를 초청하여 11월10일(금) 오후 8시에 뉴욕 찬양콘서트를 개최한다.

▲ 문의: 718-672-1150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하늘에” 초청 뮤지컬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영렬 목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하늘에’가 주관한 가족뮤지컬이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2회에 걸쳐 공연된다. 11월4일(토) 오후 7시 ‘넌 특별하단다’(You are special), 11월5일(주일) 오후 5시 ‘왕의 노래’(The Song of the King).

▲ 문의: 703-815-1200

벤엘교회, 가족뮤지컬 공연

벤엘교회(담임 백신중 목사)는 우리 가정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가족뮤지컬공연 “넌 특별하단다”를 11월11일(토) 오후 7시에 본당에서 개최한다.

▲ 문의: 차승훈장로(chashun@gmail.com) 이성준장로(sung-joonlee75@gmail.com)

AYC 청소년센터, 온라인 사역 세미나

AYC 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와 Creatin(대표 김창인 목사)이 함께 온라인 사역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1시 장소: CTS 뉴욕방송국(95 Seaview Blvd Suite 204, Port Washington, NY 11050) 협찬: CTS뉴욕, 뉴욕목사회, 작은교회연구소 강사: 손민석 국장(CTS뉴욕 국장), 김창인 목사(Creatin 대표)

▲ 문의: 718-279-1313, admin@aycny.org

브니엘한인장로교회, 목사위임 및 입당감사예배

브니엘한인장로교회(담임 홍승민 목사)는 목사위임 및 입당감사예배를 11월5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드린다.

▲ 문의: 215-220-4137

보스턴장로교회,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식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는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식을 11월12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드린다.

▲ 문의: 508-435-4579

퀸즈장로교회 “The Way” ...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의 메시지 담아



중국어(좌), 한국어(우) 예배부 무용팀의 공연



뮤지컬 “The Way” 중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다



뉴욕실버미션학교 제36기 수료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실버미션학교 제36기 종강 및 파송예배

총 17명 수료, 11월 6일부터 니카라과 선교 예정

뉴욕실버미션교회(회장 김재열 목사) 선교학교 제36기 종강 및 파송예배가 10월30일(월) 오후 7시30분 뉴욕교회(담임 김성기 목사)에서 열렸다. 제36기 교육을 통해 이하영, 서성호, 이건정, 유은주, 유경철, 김양금, 박미옥, 이병선, 노현희, 황규복, 황순봉, 이광윤, 강영란, 장일풍, 신숙영, 박건일 등 17명이 수료했다.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의 사회로 회장 김재열 목사가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는 축사를 했다.

김성기 목사는 축사를 통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을 축하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한 수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충성된 삶을 살라”고 부탁했다. 수료생들은 교육 후에는 단기선교를 나선다. 이번 36기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22명이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니카라과에 선교에 나선다. 의료사역, 한방사역, 안경사역, 미용사역, 어린이사역, 사진사역 등에 나선다.

예배는 인도 김경열 목사(훈련원장), 대표기도 박준열 목사(이사, 선한목자교회), 성경봉독 조철제 장로(이사, 합창단장), 설교 박현영 목사(이사, 퀸즈순복음교회), 헌금기도 황달연 장로(이사, 후원회장), 통성기도로 진행됐다.

박현영 목사는 “무엇을 보려고(마태복음 11:7-9)를 제목으로 설교 했다. 박 목사는 건물의 크기나 재정의 규모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는 세대를 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고 외쳤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명어를 매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나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1면에서 계속)

김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예수님 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예수님 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땅끝은 어디인가? 멀리 있는 땅끝만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알지 못한 가정과 직장도 사업장도 땅끝이기에 우리는 땅끝에 있으며 자기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유일한 길인 예수님께 돌아오라 외쳐야

한다. 성령이 이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외쳤다.

“우리들의 이야기” 순서에서 퀸즈장로교회의 설립 당시 고장영준 목사와 성도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시작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 부흥하여 현재 김성국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더욱 확장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다민족 사역을 이뤄가며 새 성전을 건축해 이루기까지 함께했던 성도들의 헌신과 함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과거 50년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길로 열여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민족 찬양(Way Maker)과 다음 세대 찬양(송축해 내 영혼), 전체 합창 곡(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을 부른 후 김성국 목사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새로운 비전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첫째로, “세상의 무너진 진리를 다시 세우라”, 둘째로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라”고 선포한 후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릴레스 센터 로비에는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교회역사 사진전이 열렸다.

(김재상 기자)



시니어 임파워링 세미나 후 사진촬영을 했다

뉴욕기독교방송, 시니어 임파워링 세미나

“전수받은 지혜 더 온전하고 풍요롭게 하여 다음 세대에게”

뉴욕기독교방송(대표 문석진 목사)은 살롬 김 박사(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10월30일(월) 오전 9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시니어 임파워링 세미나를 열었다.

찬양으로 시작한 세미나는 박현영 목사 기도와 문석진 목사의 인사 및 감사소개가 있은 후 살롬 김 박사의 강의, 정관호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문석진 목사는 “고령화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시니어 사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

에 귀한 목회에 도움이 되고 시니어 사역에 큰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다”고 전하며 “살롬 김 박사는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이며 풀러 신학대학교 신학부에서 철학박사를 받은 인재”라고 소개했다.

이어 살롬 김 박사는 “이번 세미나는 주께서 시니어에게 갖는 소원을 파악하고 시니어들을 사탄의 농락과 세력의 냉대 속에서 구하고 시니어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실현하고 완성케 하며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 지혜와 유산을 전수하며 교회에서 영성의 마지막 불꽃으로 타올라 모두가 교회 부흥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그의 저서 ‘생명의 서’를 중심으로 △추억의 서 △회복의 서 △인생의 서 △죽음의 서 △시혜의 서 △비전경의 서 △구분하여 전제적인 개념을 정리해 주었다. 또한 살롬 김 박사의 저서 ‘생명의 서’를 선착순 20명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화경 전도사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죽음을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므로 넘실함에 계산 분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수시로 체크하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홍현숙 기자)

뉴욕함께하는교회,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

“하나님의 사랑, 말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뉴욕함께하는교회(박시훈 목사)는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를 10월29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이전한 뉴욕교협 회관 2층에서 드렸다.

박시훈 목사 인도로 시작한 1부 감사예배는 기도 김홍배 목사(뉴욕피어선예도교회), 설교 이병홍 목사(국제사랑동부지회 회장), 헌금기도 김상근 목사(뉴욕밝은빛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홍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엢 2:1-22)’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담임 박시훈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임직식은 서약문답 후 권사임직기도, 공포가 있었으며 임직패를 증정한 뒤,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전회장)의 권면, 이창중 목사(뉴욕교협 부회장)의 축사, 최은희 권사의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준성 목사는 “기도의 주역이 되어 루디아와 브리스길라 같은 담임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창중 목사는 “교회를 이전한 곳이 뉴욕교협으로 뉴욕교회의 중심이니 부흥성장하는 일만 남았다”고 축사했다. 이번 임직받은 최은희 권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이날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의 축도, 노영민 목사(뉴욕주소망교회)의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홍현숙 기자)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를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피종진 목사 10월 부흥성회



- 흥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주일) 오후 김포 김령교회(조경숙목사) 010-8222-1992
- 2(월) 오전 세계 청소년 마약감시단 (World Drug Watchdog) 서울대회 (대회장 홍성선 목사) 010-3145-6682
- 3(화) 정오 권대일목사 Meeting Ceremony
- 4(수) 오후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 5(목) ~ 6(금) 전남 광주 빛교회 (김선주 목사) 010-3145-6682
- 8(주일) 저녁 권대일목사 Meeting Ceremony
- 9(월) 오전 서울 서초 Unit and Core 기도성회 주최 : Tent Makers Mission 대표회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 9(월) 오후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노희창 박성은 목사) 정기노회 장소 : 서울강남세곡교회 (박희서 목사)
- 9(월)~10(화) 서울 주안양복음교회 (이은혜목사) 010-8215-8295
- 11(수) 저녁 서울 능력순교교회 (임은선 목사)
- 13(금) 오전 대한민국 국교회(이수웅목사) 국회구국기도회 010-2508-3344
- 14(토) 오후 서울연도회관 주최 : 국제비전부흥사역(이상정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 15(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1
- 17(화) 오전 세계 여성지도자 정책심포니 (World Women Leaders Policy Sympony) (대표교문 정성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장소 : 서울 Press Group Center District Office Passport Issuance
- 18(수) 오전 군포 돌민동산교회 (이세환 목사)
- 19(목) 오전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목사) 010-8331-3431
- 20(금) 저녁 대전 중앙장로교회 (정성수 목사) 010-7291-3377
- 22(수) 저녁 분당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 23(월)~25(수) 오후 서울 삼각산선지수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010-3709-4968
- 26(목) 오후 남경산 기도원 (원장 김대성 목사) 주최 : 한국기독교부흥사 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경성 목사) K Blessing MT
- 28(토) 서인천중앙교회(정사무열 목사)
- 30(월) 오전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장소 : 서울 신라호텔
- 31(화) 새벽 서울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OMC 패밀리 페스티벌에서 뮤지컬공연후 퀴즈를 맞추는 시간을 가졌다

동양선교교회 패밀리 페스티벌

‘노아메이커스’, ‘VR체험’, ‘살아있는 박물관’ 등 준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와 유튜브 기독교 신앙 교육채널 ‘히즈쇼’(His Show)가 함께 차세대 신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OMC 패밀리 페스티벌을 10월28일(토)부터 11월4일(토)까지 개최했다. 10월28일 오후1시에 시작된 이날 패밀리축제는 뮤지컬, 성경 박물관 관람, 성경내용으로의 디폼블록만들기 체험, 그리고 주차장에 마련된 에어바운스에서 즐겁게 뛰어 놀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또한 등 록부스에 마련된 타코 트럭에서 맛있는 타코를 먹을 수 있게 했다. 가족뮤지컬 ‘노아메이커스’공연은 10월28일과 11월4일 두 차례 공연했으며 공연이 마친 후에는 아동관객들에게 채워진 분장을 한 진행자가 퀴즈를 내고 맞히며 아동들에게 선물을 주는 순서를 가졌다. 또한 교육관에 마련된 ‘노아의 방주’와 ‘성막’등을 가상현실(VR)

방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바일과 연동하여 증강 현실(AR)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나는 성경박물관’ 관람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갖게 했다. 한편 31일(화)에는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길들이지 않도록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Holywin) 행사를 준비해 기독교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동양선교교회가 초청한 한국 최대 기독교 콘텐츠 제작 단체 ‘히즈쇼’(Hisshow)는 30만 관객을 자랑하는 뮤지컬 공연과 살아나는 성경박물관, 히즈쇼 캐릭터 바운스를 선보이며 LA 한인사회 어린 자녀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번 패밀리축제를 위해 사전신청을 받았는데 500명이 참석신청을 하여 뜨거운 성원속에 이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박준호 기자)

만남의교회 제2회 이웃초청 만남 가을음악회

“정서적인 연대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제”

남가주 노스리지에 위치한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 제2회 이웃초청 만남 가을음악회가 10월29일(주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이정현牧사는 “이번 가을음악회는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잔치”라며 “세상의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놀란 영혼을 달래주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민 생활에 안식을 주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모여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새삼 느끼며 함께 정서적인 연대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제가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교회 정일홍 장로 인사말과 기도로 시작된 가을음악회는 채리티스트링 콰텟(바이올린 신대해, 김효정, 비올라 다니엘 살바데고, 첼로 제퍼슨 마르틴), 소프라노 이영주, 아르모니아 싱어즈, 카리타스 싱어즈, 소노로스싱어즈, 조이여성합창단(지휘 이영희), 풍물놀이패, 피리연주자 상영산 씨가 출연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다. (박준호 기자)



제2회 이웃초청 만남 가을음악회에서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공연하고 있다



제4회 남가주한인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제4회 남가주한인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

남가주한인합창단(단장 김정자, 지휘 최원현) 제4회 정기연주회가 ‘어느 가을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0월29일(주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김정자 단장은 “남가주한인합창단은 지난 2014년 6월에 창단되었다. 지난 2018년 10월에 제3회 정기연주회를 한 후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다. 무르익어 가는 이 가을밤에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만남’, ‘이별의 그리움’, ‘희망’, ‘사랑’, ‘그리고 사랑’ 등

총 다섯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었으며 본 합창단의 공연과 소프라노 김은진, 메조소프라노 김우영, 엘토 임수연, 테너 심요섭, 오정록, 조창현, 바리톤 임서현 등이 무대에 올라 함께 공연했으며 바이올린 박희선, 한지인, 첼로 김다휘, 베이스 종민석, 피커션 박상연, 피아노 김송하가 연주자로 함께했다. 또한 본 합창단의 지휘자인 테너 최원현이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를 불렀다. 이날 연주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른 뒤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 대표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주님의영광교회 미라클블레싱!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미라클블레싱!이 11월18일(토)까지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일정과 강사는 11월3일과 4일 신승훈 담임목사, 11월 6일 최형규 목사(생수의강선교교회), 7일 남성권 목사(남가주어노인교회), 8일 이나토미 목사(가스펠실로교회), 9일 최형규 목사(생수의강선교교회), 10일과 11일 신승훈 목사, 13일부터 16일까지 강신정 목사(논산한빛교회), 17일과 18일 신승훈 목사이며 11월 3일, 8일, 15일에는 이찬 목사가 찬양인도를 한다. ▲문의: (213)749-4500

은혜한인교회 교육부 학부모 세미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교육부 학부모 세미나가 3일(금) 오후 5시15분, 4일(토) 오전 9시30분, 오후12시, 오후 2시에 비전센터(분당) 205A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진아 전도사(다음세대 지키기 대표)이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의 회비는 \$35(부부 참여시 \$60)이다. ▲문의: Joon Lee 목사 (714)742-2995

월드미션대학교 비전넥스트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비전넥스트 행사가 11일(토) 오후 6시에 열린다. 이날 행사는 선교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 고 임동선 목사 기념 논문집 및 화보집 출간식과 영상 상영회로 진행된다. ▲문의: (213)388-1000

남가주새누리교회 2023 특별새벽축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2023 특별새벽축제가 ‘여호와를 찾으라(야고브 5:5-6)’라는 주제로 11월18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새벽 5시15분이며 주강사는 박성근 담임목사, 초청강사는 박신웅 목사(얼바인새누리교회 담임)와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교회 담임)이다. ▲문의: (213)383-4982

밸리연합감리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안정섭 목사)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5일(주일) 오전 10시에 갖는다. ▲문의: (818)366-0089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창립 120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를 11월5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또한 11월4일까지 창립 120주년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창립 120주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매일 오전 5시30분에 갖는다. ▲문의: (808)536-7244

한인기독교합창단 제62회 정기 연주회

한인기독교합창단(지휘 제갈소망) 제62회 정기 연주회가 5일(주일) 저녁 6시에 패사디나 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Shout for Joy to the Lord”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 게스트로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출연하며 티켓가격은 \$20이다. ▲문의: (213)503-0812(김은영)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 창립 4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12일(주일) 오후 2시에 갖는다. ▲문의: (714)871-8320

한길교회 말씀사경회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 말씀사경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딤후 2:1-4)’라는 주제로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김태일 목사(미육군 군목)이며 일정은 10일(금) 오후 7시, 11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12일(주일) 예배시간(오전 8시, 11시)이다. ▲문의: (323)735-0200



신혜원 사무총장이 소망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베이커 홈’ 에서 소망세미나 개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지난 10월26일(목) 오전 10시30분 감리교 은퇴목사 마을인 로렌하이츠 소재 베이커 홈(Baker Home)에서 소망세미나를 개최했다. 30여명의 은퇴목사와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유분자 이사장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유언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어 윌리엄 교육부장은 ‘치매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주위에 치매환자를 대하고 보살피는 마음의 자세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등을 설명하며 “환자들을 잘 이해하고 친구로 다가가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망소사이어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조가신청서’ 작성하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동참하기도 했다. 조가 신청서는 생전에 좋아했던 찬양이나 노래를 신청서에 작성해 놓으면 건강이 안 좋을 때나 장례식에 찾아가 불러주는 프로젝트다. 죽음 준비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가족들을 위로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는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신혜원 박사가 이끄는 치매

세미나가 열고 “치매는 병이 아닌 노화증상의 하나이며 언제부터 대비하고 인지하며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나누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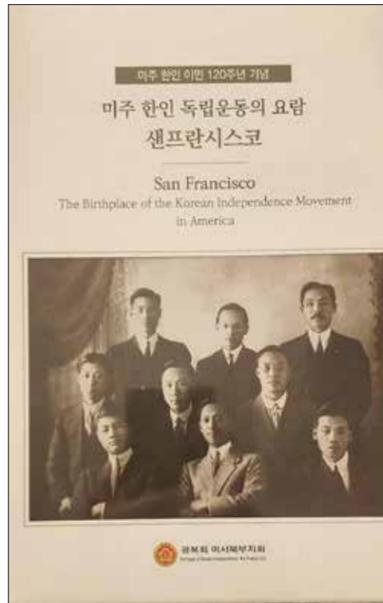
미주한인독립운동의 요람, 샌프란시스코’ 출간

다뉴바와 리들리를 중심으로 조국 독립운동 현장과 사적 수록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총정리한 ‘미주한인독립운동의 요람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The Birth-place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가 출간됐다. 미주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의 손수락 기자와 광복회 미서북부지회 사무총장인 임봉대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미주 한인인민 12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회 미 서북부지회(회장 윤행자)가 주관하여 출간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북가주와 중가주 지역 한인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역사책은 특히 미국 본토 초기 이민자들의 첫 한인 타운인 중가주 부분에는 1905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다뉴바와 리들리를 중심으로 조국 독립운동 현장과 사적들을 수록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창립된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초대 회장 차만재 교수)의 독립문과 다뉴바 기념비 건립 등 이민 역사 보존을 위한 노력의 단면들도 함께 실려 있다. 또한 이 책에는 1882년 샌프란시스코에 첫발을 내디딘 ‘보빙사’를 시작으로 최초로 조직된 미주한인단체인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의 활동 등도 소개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내용으로는 1909년 국민회 북미총회의 특파원으로 멕시코 메리다에 파견되어 지방회와 교회를 설립한 황사용의 멕시코에서의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이 책에는 해외독립운동 사상 첫 의열투쟁인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에서 일어난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의거의 현장 상황에 대한 삽

화와 당시 신문보도 등이 실감나게 실려 있다. 또 1902년 10월 유학자 샌프란시스코에 온 도산 안창호(1878-1938)의 활동, 1913년 창립된 흥사단,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초기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과 권익옹호에 앞장섰던 이대위 목사의 활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한인 사회의 구심점으로 민족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한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현재 담임 한인희 목사)와 오글랜드 한인 연합감리교회(담임 정현섭 목사)의 역사와 활동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공동 저술한 손수락 기자는 “대한인국민회 등 많은 단체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활동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샌프란시스코가 그동안 이러한 활동을 제

대로 알릴 수 있는 책자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번에 책으로 내놓게 됐다. 이 책자가 미주지역 독립운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현장을 알고자하는 이들과 후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1988년 미주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에 입사한 손수락 기자는 35년간 기자로 활약하면서 1996년 편집국장으로서 일한 후에도 한인 이민 역사보존에 높은 관심을 갖고 기자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적등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로 선정되어 전두환 대통령



미주한인독립운동의 요람, 샌프란시스코

으로부터 육조근정훈장을 받으신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 발췌, 정리: 박준호 기자)



“아멘 아멘” 대한민국 위한 850명 기도 물결 넘쳤다

제55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서

“아멘. 아멘. 아멘...”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 모인 기독교 지도자와 교인, 정관계 인사 등 850여명이 기도 응답을 구하며 두 손을 모은 채 연신 ‘아멘’을 읊조렸다. 제55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봉관 장로) 현장에 서다. 이날 기도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와 김장환(극동방송 이사장) 박종순(총신교회 원로) 김삼환(명성교회 원로) 목사 등 교회 지도자가 참석했다. 기도회에는 주한 15개국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중국 기독교인도 참석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한 직원은 우크라이나 국기로 어깨를 감싸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도회 사회를 맡은 이봉관 회장은 “제55회 기도를 열었으며 이어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선포했다. 이 의원은 “국가조찬기도회는 57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동행해 왔다”면서 “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출산 문제와 기후 위기 대응, 사회 갈등 치유와 통합,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기독교는 근대 교육의 효시였고 자유 가치를 고수했던 주역이었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하는 데 꺾대를 제시했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경제 원조 수혜국에서 시혜국이 됐고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난민기구(UNHCR) 같은 국제기구가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둘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하지만 내전 상황 같은 이념 갈등이라는 아픔도 있는데 열을 멈추고 하나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마음 모아 기도하자”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한국 교회에 감사한다”면서 “특히 지난여름 대풍과 폭염에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교회 문을 활짝 열어 주셨던 사랑과 연대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한국교회가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통성으로 마음을 모았던 특별기도는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화합과 경제부흥’ ‘군건한 국가안보와 세계평화’ ‘저출산 극복과 교육발전’을 주제로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각각 인도했다. 사랑순리트스프링단은 ‘하늘의 주’를 찬양했으며 박종순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8주의 반전’ 반토막난 교회학교 회복 이끈 ‘등하굣길 전도’ 실험

주 1회 ‘공부 잘하기 및 인사 캠페인’ 등 캠페인 전개

“애들이, 좋은 아침. 인사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길 기도할게.” 31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둔전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40년 가까이 다음세대 사역을 펼치고 있는 박연훈(64) 목사가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이곳에서 매주 한 차례씩 등하굣길에 ‘공부 잘하기 및 인사 캠페인’을 하는 박 목사와 경기도 용인 환돌교회(김종우 목사) 성도들은 ‘공부해서 남 주자’ ‘인사만 해도 먹고산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50분간 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50분간 구가 다니는 어린이 두세 명은 이들 곁에서 5분 동안 돌아가며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소은(8)양은 “화요일 아침마다 교회학교 목사님과 전

도해 기쁘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매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함유하는 분위기다. 피아니스트가 꿈인 김수빈(가명·11)양은 “매주 캠페인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팻말을 들고 싶었다”고 수줍게 말했다. 이에 박 목사는 “꿈이 선명할수록 좋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주시길 기도할게”라고 격려했다. 환돌교회가 매주 한 차례씩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펼쳐고 있는 ‘등하굣길 전도’ 풍경이다. 팬데믹 전만 해도 80여 명이었던 교회학교 학생 수는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으로 12명까지 줄었다. 교회의 장년 수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33% 감소했는데 교회학교는 85%나 급감한 것이다. 교회는 지난

6월 박 목사가 교육디렉터로 부임하면서 다음세대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9개 교회에서 시행한 ‘등하굣길 전도’ 효과를 경험한 박 목사는 지난 9월부터 본격 등하굣길 전도에 돌입했다. 박 목사는 “지난달만 해도 241명이 영접하는 열매가 있었다. 다음세대 선교의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팬데믹 후 전도하기 힘든 환경이더라도 하지만 지혜롭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박 목사의 견해다. 박 목사는 지역 경찰서에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한 뒤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들과도 소통한다. 환돌교회 교회학교는 두 달 만에 출석 인원이 22명으로 10명 늘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오는 5일과 12일 ‘태신자 초청 집회’에 53명의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작정했다.

부산기독교계 하나된 찬양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힘 실다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주최 ‘사랑과 화합의 음악회’ 성료

부산은 다음달 28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행사 유치를 기원하는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 있다.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부기장총회장 이광재 장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8일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사랑과 화합의 음악회’를 열었다. 부기장총은 음악회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사무총장 조종찬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증경회장 김항재 장로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부산 브니엘교회 김도명 목사

가 ‘호흡있는 자마다’(시150:6)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찬양은 영적인 호흡이다. 성도는 찬양할 수 있으면 어려움을 이긴다”며 “찬양을 깨우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부광교회 이희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음악회 막이 오르기 전 부기장총 대표회장 이광재 장로는 인사말에서 “부산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기원하며 분열돼 있는 부산기독교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사랑과 화합의 음악회를 개최했다”며 “최종 개최도시 결정 투표를 할 때 대한민국 부산의 이름이 판파리로 울려 퍼질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첫 순서로 부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퍼포먼스를 결단인 울동과 찬양은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뮤지션들의 연주와 노래 그리고 찬양들이 선사될 때마다 객석 여기저기서 ‘브라보’라고 외치는 축하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악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고 ‘행복’이라는 앵콜송으로 모든 출연진이 무대로 나와 관객들과 입을 맞추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성별 호칭 대명사를 꼭 사용해야 할까?

(1면에서 계속)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대명사를 밝히는 것을 꺼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을 존재론적 문제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자이자 휘튼 대학의 성 및 정체성 연구소의 책임자인 마크 야르하우스는 “우리는 이 거대한 주제에 관한 대화를 축소시켰지만,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 논쟁이 드러나는 시점에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즉, 여러 세대에 걸쳐 단순한 형식에 불과했던 인사말과 이메일의 서명란이 이제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명사에 대한 논의는 ‘미덕의 신호’나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섰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기독교인들은 현실과 사교를 형성하는 데 언어의 역할을 이해하며, 언어는 사람들을 가지 있게 하는 방식에서 핵심이라고 믿는다. 2016년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they’와 같은 성 중립 대명사의 증가에 대해 “어휘론적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 성 중립 대명사와 대체 대명사 사용이 많은 직장, 학계, 미디어에서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바뀌는 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2014년에 페이스북은 사용자를 위한 50개의 새로운 성 정체성 옵션을 출시했다. 5년 후 메리엄 웹스터는 단수 대명사 ‘they’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고, 일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대명사를 추가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대명사는 여성 스

포츠부터 마케팅에서의 트랜스젠더 표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성 중립 대명사 논쟁에서 정치적 지뢰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 중립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개인에 대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만 미국 24개 주에서 학교 내에서 대명사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일부 고용주들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국립 보건원의 직장 내 성별 대명사 가이드에 따르면 “정확한 대명사 사용하여 성별을 긍정하고 상호 존중의 의사를 표시하면 폭넓고 수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타인의 정확한 대명사 사용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명사 식별에 대한 제도적 추진은 제3의 성 대명사 또는 출생 시 성별과 다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22년에 미국 성인의 1.6%가 자신의 성별이 출생 시 성별과 다르다고 답했으며, 30세 미만 성인의 5%가 제3의 성 또는 트랜스젠더로 분류된다고 보고했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은 트랜스젠더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은 비율로 성 중립 대명사를 사용하는 사람과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공공중요연구소(PRI)는 밝혔다. 201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상사와 시장에서 성 중립 대명사를 사용하면 여성과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심리적 편견이 줄어든다”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 따르면, 대명사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면서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 오히려 강화되었을 수도 있다. 2023년 봄에 보고된

PRRI의 연구에 따르면, 2년 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성별 이분법을 믿는다고 답했다(59%에서 65%로 증가). 종교를 가진 미국인 중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의 92%, 흑인 개신교 신자의 81%, 휴먼 개신교 신자의 71%가 이에 동의했다. 2023년 6월 NPR, PBS, Marist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비율(61%)의 미국인이 성별은 출생 시 성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지난 1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언어에는 힘이 있다.

“언어는 심오한 도구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실체에 접근하



고 구성하는 방식입니다.”라고 노트르담 대학교의 가톨릭 학자이자 ‘젠더의 기원: 기독교 이론’의 저자인 아비게일 파베일은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젠더 이론은 언어가 인간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언어와 젠더에 대한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대명사는 단순히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미네소타 보건부와 같은 일부 옹호자들은 정신 건강과 자살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확한 대명사를 사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

한다. 파베일은 오늘날 “성 정체성은 신체적 성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단어에 너무 많은 강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베일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젠더 이론이 말로 현실을 창조하는 데 너무 멀리 나아가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한다(창 1장, 요 1:1).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은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여성 이론’에 대해 언급한다. “여성이 되려면: 여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기독교인의 대응 방법”의 저자 케이티 맥코이는 주장한다. 창세기 1장은 창조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용어

오늘날에는 “우리의 언어가 정체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정체성을 만들어 냅니다.”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자신과 교회가 진화하는 언어 및 사회적 규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목회를 하는 트레비스 라이머도 그중 한 명이다. “왜 사람들이 이 주제에 열광하는지 궁금해서 대명사 연구에 뛰어들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더 큰 철학적, 이념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자신의 교회와 다른 지역 교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가르치는 라이머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세속적 종교 체계로 보고 있다. 라이머는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신념 체계를 묵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도들에게 직장이나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적으로 금지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성경에 충실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로사리아 버터필드와 신약학자 로버트 가논 외 성에 대해 글을 쓰는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죄이며,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고 창조 명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전직 영어 및 여성학 교수였던 버터필드는 이런 대명사의 사용을 ‘광범위한 복음주의 진영의 야간’이라고 부르며(여호수아 7장 참조), 가능한 이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고전 8-10장)를 인용한다. “바울의 발언은 이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자기 기만에 참여하는 것까지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 원칙은 심지어 이상 숭배가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이 문제를 ‘잠만 가능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휘튼 대학의 임상 심리학자인 야르하우스는 트랜스젠더 청년 및 성별 위화감을 경험한 사람들과 자주 일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제도적인 환경에서는 대명사를 자원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요청이 있을 때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그는 반대하지도 주도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메일 서명 같은 곳에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고작 “생물학적 표시와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개인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긴다. 최악의 경우, “미덕을 어기는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야르하우스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존재론적 진리’를 동시에 붙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내재적 진리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진리를 동시에 믿을 수 있다. 야르하우스는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가치를 만든다, 성별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부 제도적 형태의 포용성은 대명사 사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커뮤니티에서도 ‘환원주의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만화영화의 엘리자베스 델가도 블랙 회장은 기독교인은 다른 틀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수님도 문화적 틀 안에서 교류하셨습니다. 그분도 동의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15면으로 계속)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교지에서 하고 싶은데?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에 한 선교사는 신학훈련과 함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있다. 전도한 멕시코 교회의 젊은이들이 직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

이기를 요구한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나누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항상 필요한 것은 천국복음이지만 일반적인

트의 성과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돈이 있다고 생각되는 외지인 선교사를 만나면 먼저 다가서는 현지인들이 있다. 돕겠다고 하고,

를 감당하려는 자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선교사를 계속만나도 재정적으로 별 유익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

셋째는 좋은 동역자를 찾아가면서 직업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와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경영분야에서도 좋은 교육의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및 경영관리 기술을 배워 발전해가는 시대에 적합한 사람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과 사의 구분이 어렵게 되어 지도력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자를 모집하고 교육자에게 프로그램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을 통한 선교는 아주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함으로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충분한 자원과 시간, 현지 이해와 협력을 필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기술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나 동역할 교회를 찾아야 한다. 현지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채널이 필요하다.

자신이 많은 네트워크이거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능력들이 포함될 수 있고, 지역 문화와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는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에 농업 기술, 농작물 관리, 친환경 농업...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락가)

29강 복된 땅, 가나안 (2)

'하나님이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수 1:9), 다윗(삼상 18:12,28) 등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진정한 복, 복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사 7:14/ 마 1:23).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마 22:37-40).

복 있는 사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합니다(시 1:1-3).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린 '자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빌 4:11-

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을 두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린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대만이 아닌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 '복음의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복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세상

성경에서 가나안 땅 아니 '가나안'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노아의 아들들 중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창 9:18).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알리는 사건으로 인해 노아의 저주를 받습니다(창 9:20-27). 그런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버지가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나안의 후예들이 흩어져 살았던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창 10:15-20).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창 12:7, 13:15, 15:7, 17:8, 26:3).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행 7:3)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hfamilyfa@gmail.com



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던(창 39:3,23) 그

13).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마 5:3-12).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고, '공홀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 복'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혹시 당신은 입술로는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고 정작 관심은 모든 종교 활동을 통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복'은 '세상'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복의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유래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왜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마14:19-21) 찬 591장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신 것이다.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 천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일 하시고 모든 생물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을 하신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오늘의 양식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재물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내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불평은 죄다. 교만도 죄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무지도 죄다.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도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삶의 기본이다. 만족이 아니라 주인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감사하여야 한다.

화 오늘도 물 위로 걷게 하시고 빠질 때 건져 주시는 주님 (마14:25-32) 찬 435장

사람들은 수시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에 빠진다. 빠지면 그 생각안에서 허우적 거리며 계속하여 생각을 하면 할수록 빠진다. 빠지면 그 생각에 취하여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된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같이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라. 즉 그렇게 하므로 나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리고 계속하여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생각에서 빠져나온다. 베드로를 구하여 주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 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을 모시라. 계속하여 주님을 생각하면 그러한 사망의 생각에서 나오게 된다. 수시로 사망의 생각에 빠질 때 즉시로 주님을 생각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라.

수 왜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일어나지 않는가? (마15:7-9) 찬 436장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이 주님과 멀리 있어서 그렇다. 겨울에 따뜻한 불은 멀리서도 볼 수 있으나 가까이하지 않으면 그 불이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음과 같다. 살아 계시는 주님은 나에게 오셨지만 내가 주님에게 마음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가까이 하지 않는가 하면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계속하여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 방해를 넘어가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생각하기를 훈련하라. 주님 생각을 많이 하라. 한번 설교 듣는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는 매우 짧다.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알게 됨이 풍성하게 되고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주님을 더욱 생각함으로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찬송이 솟아난다.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누가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목 더러운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게 하라 (마15:18-20) 찬 365장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함이 더욱 중요하다. 마음이 죄의 생각으로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지면 죄를 사랑하게 된다. 죄를 사랑하면 죄의 포로가 된다. 마음에는 사망의 생각이 우글거리고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교만과 분쟁하는 생각들이 힘있게 나타난다.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생각들로 인하여 나 자신을 찔러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말로 인하여 이웃의 마음도 찔러 고통을 주게 된다.

다. 마귀가 조롱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마음에 스며들도록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여야 한다. 본인의 마음이 정결하여지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 역사한다. 마음이 찬송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정결하면 거룩한 생명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금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신다 (마15:21-28) 찬 423장

주님은 귀신으로 고통을 겪는 딸의 어머니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에게 나오게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에게 나가면 나을 받게 하신다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듣고 따라나서는 것이다. 절망하고 고통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따라 나가는 것이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육신의 충

동도 일어난다.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육신의 생각을 믿어 뒤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주님은 믿음을 보내어 그 믿음을 따라 계속하여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크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딸을 낫게 하신 것이다.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토 하나님이 알려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가 (마16:13-17) 찬 436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 할 수 있다.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요 목수다. 그의 가족들을 안다.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알 수 있지만 베드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이다. 만물의 창조주요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 그분이 곧 하나님이

심을 안다.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 주실 때 알 수 있다. 오늘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김태오 목사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TVNEXT.org 공동대표)

할로윈의 기원과 현대판 할로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보는 할로윈!

언제부터인가, 10월이 되면 "Happy Halloween" "Celebrate Halloween"이라며 할로윈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마켓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할로윈은 모두가 축하하며 돈까지 쓰면서 기념할만한 날일까요?

먼저, 할로윈의 기원과 지금의 할로윈의 실체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ll Saints Day and Samhain - 모든 성도의 날과 삼해인"을 알아야 합니다.

11월 1일은 본래 "Samhain-삼해인 (귀신)의날"이라는 유럽의 유명한 켈틱 축제(Celtic festival) 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영과 교제하는 날이었습니다.

Samhain(삼해인) 을 지키던 Celts (켈트)족은 2000년 전에 아일랜드, 영국, 북부 프랑스에 주로 살았던 유럽 사람들인데 그들은 삼해인 축제때 다음과 같은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들은 추수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계절의 변화가

1. 할로윈의 시작 - "All Saints Day 와 Samhain" 의 혼합, 전야일 밤.

결론적으로 할로윈은, "All Saints Day 와 Samhain ("모든 죽은 성자들 기념 날" 과 "삼해인"(죽음의 영 부르는날) 이라는 두 가지 행사가들이 혼합되어 내려오다가 또 다른 "죽음의 영을 기념하는날" 까지 혼합되면서 사탄숭배자들이 말하길, 그들의 왕, "사탄이 가장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말할 만큼 변질되어 왔다는 사실이 할로윈의 현주소입니다.

(사탄숭배자였다가 크리스천이 되어 할로윈의 실체를 알리는 동영상은 TVNEXT.org 에서 참고)

초간단 뒷 배경:

AD 600년경, 가톨릭 교황 보니파스 4세 (Boniface IV)는 5월을 "All Saint's Day- 모든 (죽은) 성자들의 날" 로 만들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이미 천국간 신앙의 영웅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날로 경축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톨릭교의 수장이었던 교황 그레고리 3세 (Gregory III) 가 유럽에 있는 이교도들의 축제를 없애고 가톨릭적인 축제로 대체하고자 5월에 있던 "All Saint's Day"를 본래는 죽음의 영을 부르는 삼해인 축제일이던 11월 1일로 바꾼 후, 11월 1일의 휴일 전야 축제를 10월 31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로윈은 11월 1일의 전야일인 10월 31일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야일 이름을 "All Hallow 's Eve" 또는 "All Hallow 's Even"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11월 1일의 휴일 전야축제일 밤 10월 31일의 이름에 변경이 생깁니다:

당시에 "Hallow" 는 거룩, "Even"은 저녁을 의미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름이 단축되어 "Hallow'en"이되고 오늘날은 "Halloween 할로윈" 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 도데체 11월 1일, Samhain(삼해인) 은 어떤 날이었던가? 할로윈의 변질 시작!!

1) 죽은 자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다리라고 믿고,

2) 삼해인 축제때 죽음의 영을 부르고
4) 죽음의 영에게 삶의 지혜를 구하며
5) 악령을 달래는 의식을 하기위해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바치고
6) 내려오는 소문에는 동물외에 더 끔찍한 희생들도 치루어졌었다고 합니다.

3. 11월 2일 : "All Souls Day" 와 "Day of the Dead 죽은자들 기념일" 과의 혼합

그 이후, 가톨릭에서는 11월 2일을 "All Souls Day to Honor the Dead - (천국에 갔다고 믿는 성도들의) 죽은 영혼들 존중, 기념일" 을 만들어서 순교한 신앙인들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Day of the Dead-죽은 비성도들이 연옥에 가도록 기원 하는날"로 바뀌어 한마디로 죽음의 영을 숭배하는 날로 세계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한예로, 미국에 들어온 많은 가톨릭 멕시코인들은 Mexican Day of the Dead 를 크게 축하하는데, 이 행사의 근본은 역사속에 적힌 귀신을 달래기 위해 사람도 바치는 "피흘림 제사" 를 지키던 Aztecs 아즈텍 문명과 Olmec (올멕 문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멕시코인들도 모르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념일들은 역사기록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결론: 21세기의 할로윈, 크리스천들이 도울 성경적 관점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Reject every kind of evil!" (살전 5:22)

할로윈은 결국, 죽음의 영과 교류하고, 동맹을 맺고, 죽음을 celebrate 하며 악을 "happy 행복" 이라는 거짓을 선포하며 행동으로 참여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사탄숭배자인 존 라미레즈는 "크리스천들도 할로윈에 참석한다는게 충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침 - 대형 파랑장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5. 참된 아버지상(像)

현대는 면허의 시대입니다. 의사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라이선스가 없습니...

를 내팽개쳐 두는 아버지 (4) 신 호위반형: 규칙을 무시하고, 도덕과 윤리가 없으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5) 끼어들기형: 항상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며, 자녀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에 대한 함정이 많은 아버지 (6) 무단추월형: 자녀의 필요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선심을 베풀며,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아버지 (7) 중앙선 침범형: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며, 사생활까지 방해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무면허 아버지' 문제가 양산된 것은 그동안 참된 아버지상, 본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아버지의 영향을 못 받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참된 아버지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의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종인 하갈과 동침하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오늘날까지 중동의 불씨를 낳게 했고, 순종의 조상 이

사도 야곱의 약은 궤에 속아 축복권을 잘못 행사하므로 좋은 아버지상을 남기지 못했고, 축복의 조상 야곱은 4명의 부인들로부터 배다른 형제를 12명이나 낳게 했고, 요셉을 판매하므로 형제간에 시기와 미움, 갈등을 일으키게 하여 바람직한 아버지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다윗도 밧세바를 탐하여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고, 배다른 형제들의 왕위쟁탈과 남매간 근친상간,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구테타까지 일으켰고, 왕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700명의 후비(왕후)와 300명의 첩과 후궁을 거느리는 일부다처와 우상숭배에 빠져 결국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고 멸망에 길로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등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축복의 조상, 위대한 성경, 지혜의 왕이 되지만,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는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좋은 아버지상을 보여주지 못했음은 안타까운 주지의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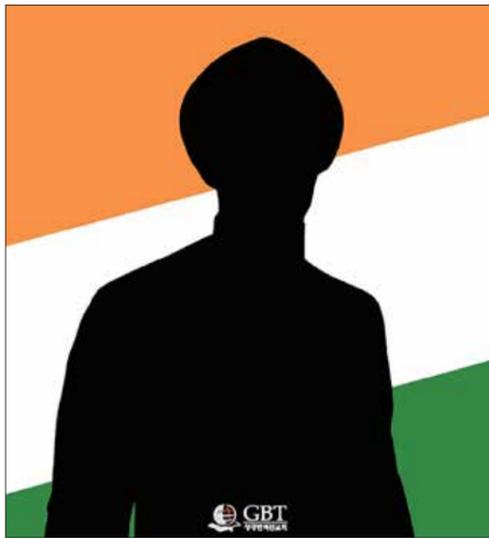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아버지상은 누구이며,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눅 15:11-32)에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아버지상과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산을 받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서 스스로 돌이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둘째 아들을 보고, 열째안고 환영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자

비와 인자와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탕자이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아버지상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상을 깨닫거나 본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된 아버지상을 탕자의 아버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고전 2:10-11)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동,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으므로 참된 아버지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삶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참된 아버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참된 아버지상(像)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므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

▲ 종족명 가니까란 종족

▲ 인구 19,000명

▲ 종교 힌두교 98.5%, 기독교 1.3%, 이슬람교 0.1%, 기타 0.1%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필 종족 케랄라와 타밀 나두 지역의 정글이나 주변에서 주로 농사를 지으며 낚시와 사냥도 한다. 20세기에 일부는 정부가 만든 식민 정착촌으로 옮겨졌다. 마을의 중요한 문제는 원로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양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주로 힌두교를 믿는다.

▲ 기도제목

- 1. 가니까란이 성경이 번역되어 어둠에 갇힌 가니까란족이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알도록
2.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성별 호칭 대명사를 꼭 사용해야 할까?

(12면에서 계속)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커뮤니티에 속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사역하는 트랜스젠더 및 제3의 성 커뮤니티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대명사에 대해 덜 생각하고 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PRRI의 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 (62%)은 사람들이 대명사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고 생각한다 보고했다.

많은 사람에게 대명사 사용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왕궁에서 일하도록 발탁된 다

니엘의 성경적 예를 듣기도 한다 (단 1:4).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감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신경 쓰지 않는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는 이교도 이름과 모세 율법에 반하는 음식과 마실 것이 주어졌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다 (1:4-7). 성경은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갔다고 기록한다. 다니엘은 새 이름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음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는 그에게 법의 문제였을까, 지혜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양심의 문제였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니엘이 용기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일부 기독교인은 제도적 규범과 개인적 관계를 구분한다. 노트르담의 학자인 파블레는 "사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양심이 신앙에 매여 있는 기독교인은 친구에게 자기 식별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민 불복종이나 침묵을 통해 자신의 대명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진리를 따르고 동시에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기독교의 명령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신학적 진리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둘 중 하나가 부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종종 문화와 싸우거나 문화에 항복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사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본보기가 적습니다."라고 야르하우스는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점 더 희미해지는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입니다." 비록 성경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과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해 발견되는 경건한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진리를 제시한다. 야르하우스는 "이웃, 직장 환경, 인간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분별력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사의 직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저는 제 대사의 직분을 대명사로 축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by Kara Bettis Carvalho, CT

Nov 5th 썸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11월5일에 해제된다. Includes a clock graphic.

Table of church listings with columns for church name, location, and contact info. Include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교회음악 이야기(46)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종교개혁 특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왜(why)'라는 질문은 '무엇(What)'과 '어떻게(How)'의 근간을 이루는 말이기...

과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날 예배에 왜(Why)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입니다. 자연히 예배의 중심이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이때 알 아들을 수 없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성찬을 강조함으로 성직자의 권위를 강조한 것은 예배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며 개혁하게 된 마틴 루터가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던 큰 키(Key)는 음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찬송 관과 찬송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도입한 것(Contrafactum)입니다. 당시 루터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힘과 피난처 그리고 도움이 되시기때문에 지속되는 극한 시련과 압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곡을 만들게 된 것 입니다.

그것을 위한 들러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또한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대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 예배자들을 나태하게 만들어 회중들을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자들처럼 구경꾼으로 다시 몰락시키는 모습은 없는지 이 또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가을 끝자락에 피어난 철부지 수국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쌀쌀한 바람은 가을의 끝자락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원을 향해 눈길을 두다가 아주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수국을 보았습니다. 수국이 피었다 진 지가 언제인데 이미 가을이 기울어져 겨울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지금에 홀로 꽃을 피웠을까.....

고 밝게 매만져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수국을 보며 하루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 16:23-24)."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담임목사청빙공고

그리스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소속이며, 미국 시카고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2대 담임 목사은퇴(2024년12월)를 준비하며 제3대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A. 자격 요건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회원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 Div)를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3. 목사 안수 후Full time으로 목회 경험이 3년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4. 한국어와 영어 사용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
5.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6. 가정교회 유경험 혹은 이해하는 분

B. 제출서류

- 1. 지원서 - 본 교회 양식(https://igrace.org에서 다운 받으세요)
2. 소개서 - 본인 및 가족
3. 목회 계획서 - 장단기 목회 계획
4. 증명서-(1) 신학교 졸업증명서 (2) 목사안수증명서
5. 영상 - 최근 6개월 내 설교 동영상2편(설교원고첨부요망)
6.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2부 (추천자가 직접 email로제출)
7. 신앙고백서 (목회소명 간증문)

C. 유의사항

- 1. 모든 서류는 그리스교회 담추위 공식 이메일로만 접수 받습니다.
2.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5. 제출마감은 2023년 11월 30일이며, 제출처는 damchuwee@igrace.org 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그리스교회 제 3대 담임목사청빙후추천위원회

Grace Presbyterian Church 4000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www.igrace.org

자비량으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조용한 도시 NEW Mexico에 소재한 교회입니다.

소속 교단은 장로교회 미국교단 Cumberland Presbyterian이며 담임목사님의 건강문제로 후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주 적은교회여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자비량 선교(목회)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으며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으로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유목사 (915)329-3451 or (915)329-8826

